朝鮮日報
夕刊
十一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南京總進擊命令

【上海十一日發同盟至急報】南京城壁에 殺到한 我第一線 各部隊에 對하야 十一日午前十一時 城壁 或은 城內에 蟠居하야 頑强히 抵抗을 繼續하는 敵을 一擧에 粉碎하기爲하야 總進擊命令을 下하엿다

富士井伊兩部隊 中山門에殺到

城壁敵堅壘를猛砲擊

【孝陵衛에서十一日同盟特派員發】我砲兵隊는 紫金山에 砲列을 布하고 午前十一時를 期하야 一齊히砲門을開하엿다 我正確無比한 砲擊은 一發마다 城壁及城壁上의 堅壘를 모조리 粉碎하야 火砲의 威力을 最大限으로 發揮하고잇다

【光華門에서十一日同盟特派員發】紫金山麓으로부터 南京城壁에 肉薄한 富士井、伊佐兩部隊는 十一日朝來 空軍의 激烈한 猛爆擊으로 中山門死守의 敵이 怯내고잇는것을보고 午前十一時半 단숨에 中山門에 殺到하야 砂塵中에 大混戰을展開하엿다

海軍機도協力

【上海十一日發同盟】海軍航空隊○○機는 十一日早朝來南京에 至하야 高射砲彈炸裂中에 敵陣을 目標로 巧妙하게 急降爆擊을 敢行하야 陸軍의 活動에 協力하엿다 南京城은 轟轟한 爆音과 森嚴한 砲煙에 싸이게되엿다

清澤國民使節 왈소우府向發

【伯林十日發同盟】國民使節清澤洌氏는 伯林에잇서서의 使命을 마치고 十日伯林出發 왈소우府로 向하엿다 清澤氏는 부다페스트、아테네、暹羅를 巡歷할豫定이다

當塗를完全占領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十一日午後一時發表

我軍의一部는 南京蕪湖道上의 要衝 太平(別名 當塗)을 完全히 占領하엿다

光華門占領 歷史的發表

【東京電話同盟】十日午後一時半 新乎南京總攻擊을 開始한皇軍은 마침내 午後五時 光華門을 占領하고 城壁上에日章旗를 飜揚하엿다 全國이기달리던 이報는 十一日早曉一時東京三宅坂의 大本營에 到着하야 大本營은即時로 新聞通信記者團에對하야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大本營陸軍部十一日午前一時發表

我軍의一部는 十二月十日午後五時 南京城光華門을 占據하고 城壁上에日章旗를 飜揚하엿다

米旅客百人乘機 十二臺를建造

【紐育十日發同盟】巨人飛行機建造時代의 潮流에 乘한 汎米航空會社에서는 過般來 太平洋橫斷定期航空路에 使用하는 巨人旅客機 建造計畫을 進行하고잇든바 十日 旅客百人乘 巨人飛行機十二臺 建造入札을行하엿다는것을 發表하엿다 新巨人飛行機의性能은 如左하다

一、搭乘人員旅客百人 乘員 十六人
一、時速二百七十四哩
一、高度二萬呎
一、重量約十七萬磅
一、船腹三百呎以上

松井司令官 各部隊에感狀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十一日午前十一時三十分發表

上海方面에 勇戰奮鬪하고잇는 部隊에對하야 松井軍司令官으로부터 左記와如히 感狀을附與되여 十二月十日夜 各其城門에達하엿다

谷部隊、藤田部隊、吉住部隊、山室部隊

閑院參謀總長 宮殿下御參內

【東京電話同盟】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十一日午前十時二十五分宮中에 御參內 天皇陛下께 拜謁 御所管事項에 關하야 御奏上하시엿다 또杉山陸相도 同時參內 所管事項에關하야 委曲奏上 여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한後退下하엿다

閑院宮春仁王殿下 御任務에御精勵

【天津十日發同盟】閑院宮春仁王殿下께서는 支那駐屯軍에 御着任以來 竹園生의 노프신 御身으로써 朔風이荒吹하는中에 毎日寒暖도不拘하시고 任務에 御精勵하시고 또 御退出後 御宿舍에歸하신後에는 第一線將兵의 勞苦를御顧慮하사 軍服을 입으신대로 御不自由하신 御起居를 繼續하시고 계시다 殿下께서는 第一線에 서서 奮戰한 武勳을 세우고 不幸히 戰死傷한 將兵에게特히 御心을 注하시사 前者에兵站病院 軍病院等을 御訪問、傷病兵에 御親히 御慰問하시고 또天津驛頭에 戰死者의遺骨이 送還되엿슬때에는 반드시北支派遣軍將校를 御差遣하시사 在津將兵으로하여금 一層感激케하고잇다

南總督御祝電

南總督은 十一日朝南京陷落의 公報를 接하고 卽時松平宮內大臣에게祝電을 發하야 天機奉伺를 乞하엿고 또參謀總長宮殿下 軍令部總長宮殿下 兩家事務官에게祝電을發하야 兩殿下께 言上을乞하엿는데 其電文은 左와如하다

支那首都南京이途히陷落함에對하야 眞실로 慶祝不堪 謹而天機奉伺함

右謹奏上을乞함

松平宮內大臣閣下

首都南京陷落의 快報에接하고 此에依하야 蔣政權은 實質上崩潰되는바 今次聖戰의 使命은 一大成果를 修한것으로 中外에 與하는影響은極히甚大함 此 元來 御稜威의所致이나 忠勇義烈한 皇軍將士가 困苦欠乏에 善堪하야 勇戰奮鬪 皇軍의 威武를發揚한 賜物以外에 아모것도 업다 故에衷心으로慶祝의意를 奉表함

右言上을乞함

閑院參謀總長宮殿下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
兩宮家事務官殿

南總督은다시 陸軍大臣、北支派遣軍最高指揮官、長谷川司令長官에게 各各祝電을發하엿다

事變의永續을 諸君은覺悟하라

南總督重要訓示(十一日)

南總督은 南京陷落에當하야 十一日午前十一時半부터 約三十分間 總督府第一會議室에 判任官以上 約八百六十名을 招集하고 官吏로서 今後의 進行할目標를 訓示하는 重要訓示를 發表하엿다

右訓示는 更히 大野政務總監의名義로써 第一次所屬官署長及 各道知事에 通牒을 發하야 그趣旨의 徹底를 期하기로되엿다

訓示의要旨는 大槪左와如하다

一、南京陷落은 當然히 蔣政權의 崩壞를 意味하는것이다 蔣政權이라고하는것은 容共、抗日、侮日政策에 終始하야 가장 숨괴할 東洋에서 東洋人의 覇權을 拒絶한 元兇政府이며 一에 軍閥이 滿하면 帝國은 全面하게 飛行機로 支那를 代表하는 政權으로 南京을 遺出한時 支那를 代表하는 資格을 喪失한것으로 보지안을수가업다

一、蔣政權은 共產主義의 支持下에 今後도 一部는 存在한다지도未知이나 그것은 一地方政權에不適하야 現下其威令은 隴海線以北에는 아모것도 行하야지지안코잇다 여것이 今回南京陷落에 依하야 現實로써 人의 前에 展開하는 一大變革을 齎來하는것이다

一、어미支那의 代表的政權으로써 崩壞하얏다 그러나 民衆의 生活安定과生命安全은 圖謀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故에 各地自治政權이 樹立되며 또이에聯合하야 聯合政權이 出現될것이다 此新政權과 日本과의關係는 斷然容共政策을 排擊하야 抗日侮日思想을根絶하는 親日政權이아니면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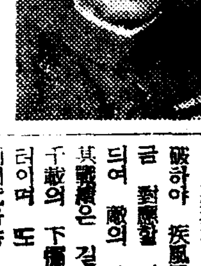
如斯한 政權이면 帝國은 全部擁護할수가잇다

一、今次事變에 當하야 帝國은 國民總動員으로써 또目標는 眞實한東洋平和를 圖함에 在하다、支那全人民을 敵으로하는것은아니다。 寧히 此를 救濟함에는 人民을塗炭의 苦에 陷入하야 東洋平和를 擾亂하고잇는 蔣政權及此를支持하는 軍閥과 또 背後에在한 第三國의 共產的根底를 絶滅식힘에 專在하다

南京陷落은 實히 支那四億民衆을爲하야 크게 慶賀할일이다 此意는 今後數年後에 必히 幸福을 齎來함에 依하야 證明될것이다

一、蔣政權은 崩壞하드래도 其背後에는 依然히 軍需品을 供給하고잇는限 事變은 一終末을 告한것이라고 볼수가업다 支那民衆이 第三國으로부터 抗日의中樞를 占據함에 當하야 ...

南京占領에關한 小磯軍司令官談



敵國首都南京을 攻略하야 日章旗를 날리게 된것은 皇紀二千五百九十七年 昭和聖代의 一大스러운일로서 快心事이다 여것은 오로지 大元帥陛下大稜威와 그러케한바 이고 又皇軍의 勇戰、銃後의援護에賴한바 多大하다 故에派兵의目的으로 勇戰을企圖할 排日抗日의中樞를 占據함에 當하야 感激이새롭다

그런데 上海攻略에 臨하여 諸多의惡環境을 克服하고 堅陣을突破하야 疾風迅雷로 敵으로하여금 對應할 여가가업게하야 드디여 敵의 首都南京을 陷落한 其戰績은 길이 靑史를 飾하고 千載의 下에光輝를 發할것이며 또 名不異人을 爲하고 大同에 就하야 幾多의 戰死傷者를 냄에 對하야 擧國一致로 銃後와 前線을 굿게하는 努力、就中 國民의 ... 實現하야 長期的內鮮一體의 ... 참으로 先人의 偉業에 報함이 子孫에 遺할 數 ... 대해서는 衷心으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생각컨댄 敵國은 野戰軍의 大部를 喪失하고 其首都를 빼앗겻다 바야흐로 降을 軍門에 請하야 速히 和平의 道를 講하야서 無辜의 民을 戰禍로부터 救할 好機에 際會하엿다 然而나 其軍、政首腦者는 무슨 期함인바 엇슨인지 長期抗戰을 呼號하고 又抗戰의 態度를 가질것을 表明하엿다 東洋平和를 確立하야 明朗한 日支親善을 期하는 帝國의 所信과 相容이 되지안흠수업다 즉 帝國은 이제 我軍事行動을 斷然的遂行을 行할 뿐이며 遂行하여가는 過程에서 爾來 ... 上海戰의 徒勞가 아직도 存在하는 限은 斷然코 膺懲의 矛를 收할수업는것이다 적어도 眼前의 小成에 安하야 安協的和平에 甘한다면 悔를 後世에 貽할 것은 明若觀火한바이다

今番의 戰況에 臨하여 於此에 吾等의 氣魄을 새로히 하야 將士는 重來 참심 當初의 決意를 强固히하야 事變의 根本的解決에 邁進할 覺悟로써 益益堅確히 하지안흐면 아니된다 만약國際間의 ... 向 就中 中國政權을 操縱하는 第三國의 策動에 對抗하면 ... 不許할것을 表하야 正하게 ... 平和를 ... 하야 ... 同時에 所信의一端을 披瀝한다

(小磯朝鮮軍司令官)

敵光華門에逆襲

伊藤部隊奮戰後擊退

【光華門外에서十一日同盟特派員發】十日夜半부터 今曉에걸쳐 光華門의 伊藤部隊方面에 大逆襲하여온敵은 城壁 ... 하야 一時에는 非常한苦戰에陷 必死的으로勢力을 猛烈하야 手榴彈 機關銃彈을 비가치퍼부어와 我將兵은 卽時防戰으로서 應戰 마지하엿다 이逆襲에서 最後의 突擊을 敢行하엿스나 肉彈戰으로써 逆襲을 擊退하고 빗나는 十一日黎明을 맛게되엿다

瓦斯戰으로서 抗戰하려한것이明白하게되엿다

牧島映畵班員負傷

【東京門에서十一日發同盟】同盟通信社牧島映畵班員은 十日午前十時 南京에 相距하기 二町地點 東京門前面에서 戰車에同乘 撮影中 左前額部에 敵彈의破片을 맛고 輕傷을 負하엿다

紫金山占領詳報

【高橋門에서十日發同盟】南京防備의 最要衝인 紫金山의敵으로는 砲火를集中하며 가장 頑强히 抵抗하고잇섯스나 富士井部隊는 十日早曉 攻擊을開始하야 菅原部隊는 今朝七時 마침내 이를 占領하고 紫金山頂에 빗나는日章旗를飜揚하엿다

城壁에機銃備置코 城內敵掃射中

空軍市內敵陣을猛爆

【光華門城外에서十一日同盟特派員發】十日午後五時半激戰後光華門을 確保한 脇坂部隊의一部는 城壁을奪取하려고 夜襲을反復하여온 敵大部隊와 數次에亘하야 血戰을 演하엿든 伊藤部隊는 어데까지 一日備한 城壁을 死守하야 十一日早朝에 至하야多大한 打擊을與하고 이를 擊退하고 午前九時半 城壁上에機關銃을設置하고 敵條의日章旗를 朝風에날리면서 城內의敵을掃射中이다

陸海軍飛行隊도 어와呼應하야 城內의敵을 猛爆中이다

南昌에大本營設置

【上海十一日發同盟】首都南京도 崩壞되여 蔣介石은 抗戰態度를 强化하야 徹底的敗戰을 圖하는同時에 今後의作戰方針을 變更하야 日本軍의猛攻에備하게로 決定하엿다한다

그리고 大本營의 移轉先을 南昌으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南昌에 臨時大本營을 設置하고 敗殘兵을 集結하야 最後의 抵抗을하게 하엿다 그리고 城內에는 共產軍首領朱德 毛澤東等을 重要地位에 두기로되엿다 그리고 一方浙江中으로하야 新兵三十萬을 强制募集하야 武漢을 通하야 江西 浙川 湖南의各軍을 團束하야 軍事機關을 ...

人面鏡

◇南京城 陷落 報道를 ... 幾日을 기다렷든가 時間問題로서 지냇든 일이오.

◇그리 멀지 않아 陷落되리라고는 생각하엿지.

◇全國을 通하야 祝賀의 ...

◇興을 배푸는것은 當然한일.

◇넘어지는 政治的、軍事的으로 어떠케 處해갈가가問題。

◇蔣介石政權의 否認 北支新政權과의 協力 이 머칠에 影響이 如何?

◇벌서 歲末이 되엿다고 街頭에는 歲暮大賣出。

◇歲月은 빠르지고、於焉間一年이 지나단 말가。

◇그러나 事變關係로 財界가 活況을 일고 實質적 적은것은 近年에 드문 일。

◇白銀歡送 五十餘名을 殺人罪로 送局한다고。

◇天下의 惡黨徒、斷然히 嚴罰하라。

紫金山殘敵掃蕩

敵中山門으로敗走

【大校場에서十日同盟特派員發】富士井部隊의一部는 十日午前十一時紫金山의 殘敵을 完全히掃蕩하고 日章旗는薄雲中에 紫金山上에서 飄揚히 翻揚하고잇다 敵은總崩壞하야 中山門方面으로 潰走하고잇는데 我軍은이를急追 敢然히 城門에肉迫하엿다

觀城范城等의 敵軍을爆擊

【○○根據地十日發同盟】黃河를 건너 南方으로 潰走하는敵에對하야 連日猛爆擊을 加하고잇는 島谷部隊는 十日午前 十時三十五分 河北、山東兩省境인 觀城에 群集한 敵百의 敵에對하야 爆擊을加하고 島田部隊는 同十一時半 范城(濮縣東方二十粁)의 敵을爆擊하고 또山瀬部隊는 運河畔의東昌(大名東北方六十粁)에 敗殘兵이 集結하고잇는것을 發見하고 爆擊하야 多大한損害를 與하엿다

日支關係重大轉換

南京陷落同時에帝國不動의信念을

首相談形式으로聲明

【東京電話同盟】首都南京의 陷落은 事實上 中央政權으로서의 國民政府의 轉落이오 日支關係에 重大轉換을 劃하는것으로 經濟界는 顯著히 明朗色을 示하엿다 卽 財界各方面의 意向을 綜合하면 南京의 陷落은 軍事的 政治的으로 보더라도 어떠 蔣政權의 地方政權化를 意味하는것인데 이를 經濟的으로 보더라도 法幣의 下落은 바야흐로 必至이오 이에 伴하는 民心의 離反도 漸次深刻化하야 國內分立은 모든 角度로보아 自然이라고 觀測된다

따라서 이를 契機로하는 北支의 次期政權樹立、經濟工作의 促進等 多大한 期待를 하게되엿다 勿論 財界로서는 今後의 日支關係의 重大轉換、特히 北支政權의 具體的出現、中南支의 現實的動向에 對하야 重大한 關心을 寄하고잇다 蔣政權에 對한 徹底的膺懲과 日支關係의 根本的解決을 爲하야서는 不當한 第三國의 介入을 어데까지던지 拒否하고 反省한 새로운 支那와의 提携에 依하야 日支共存共榮의 本然의 姿態에 歸할것을 要望하고잇다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南京陷落과 同時에 首相談의 形式으로 聲明을 發表하게 되엿는대 特히 左의 二點을 强調하야써 國民의 長期抗戰의 覺悟를 要望하는 同時에 我國의 支那事變에 對한 不動한信念을 中外에 闡明하기로되엿다

一、國民政府의 首都南京이 陷落한것은 今次聖戰의 一大轉機를 劃하는것이다 事變은 아직 繼續할것이라고 推察됨으로 國民은 더욱 一層長期抗戰의 覺悟를 鞏固히 할必要가잇다

一、南京陷落에 依하야 蔣政權은 地方政權에 墮하려함으로 東洋平和確立을 期하는 우에서 帝國의 責任은 今後 益益重且大하게 되엿다 帝國政府는 이點을 自覺하야 防共의 見地에서서 事變의 窮極的目的達成에 萬遺憾업기를 期하려한다

時事解說

秦淮河

◇南京의 名勝을 생각할때 먼저 聯想에 떠오르는것은 秦淮河다。 ... 南京의 寺의 紫金山의 秋色 어느것이 名勝이아니요 古蹟이 아니랴만 秦淮河의 夜景이야말로 ...

◇秦淮河의 기리는 約二哩어 ... 南京의 繁華街를 ... 京城 東南으로 흘으는 ... 河川을 人工으로 ... 內 第一繁華한 夫子廟를 ... 連하야온 ...

◇『畵舫』(노리배)이며 歌妓가 ... 客의 興을 돋운다。

◇...夫子廟附近에는 ... 南京에서 ... 또 第一繁華한 거리로 그 ... 이 그러나 ...

◇十一時에 이르러서부터 ... 그러나 南京이 國民政府의 首都가 된 ... 秦淮河도 ... 歡樂의 ... 되고 城內의 唯一한 ... 漸次衰頹하게되엿다。

米極秘密裏에 支那駐屯軍撤收

하스트系米各紙報道

【紐育十日發同盟】十日하스트系各紙는 上海特派員의報道로하고 米國上海駐屯軍의一部撤收와 北京駐屯軍撤退計畫을 報道하야 注目을惹起하엿다 하스트系上海特電의報道는 如左하다

明年一月初 米國上海駐屯軍 中 第四海兵隊의 一部는 軍用船 ○○號로 本國에 撤退하고 今後는 上海에 在留하는 米人保護에 必要한 兵力만을 남기게될것이라고 報道하며 一方米國은 義和團事件以來三十七年의 歷史를가진 北京駐屯軍을 撤止할 意圖인바 北京駐屯軍 第十五步兵聯隊는 撤收할 模樣이다 米國司令官은 米國人在留民의 生命財產保護에 關하야 一切責任을 負擔하고 이決定을 一切發表에附하엿다

揚子江敵前渡河

浦口로進擊開始

AP南京特派員報道

【紐育十日發同盟】日本軍總攻擊下의 南京戰況에對하야 AP南京特派員은 十日如左하게 報道하엿다

支那軍은 日本의進擊을 阻止하기爲하야 依然砲火를中止하지아니하여 南京城內는 完全히 火焰으로싸이게되여 繁華한場所는 目下盛히 火災가이러나고잇다 日本空軍은 重要目標에向하야 爆擊을敢行하야 軍官學校는 完全爆破되고마럿다 또 日本軍飛行機는 國際避難區域의 上空을 飛翔하엿는데 砲彈이落下하야 多數한死傷者를 내엿다 惨事를目擊하엿다 攻擊하지는아니하엿다 余는 城壁에依據한支那軍의 한가운대에서 急行하엿다 日本軍은 어미揚子江을敵前渡河하야 浦口를 向하야進擊하엿다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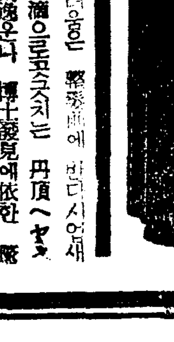
松岡滿鐵總裁渡東

【新京十日發同盟】松岡滿鐵總裁는 藤井秘書을帶同하고 十日午前七時半 飛行機로 上京途上에 올랏는데 途中鄕里에서 省墓한後 十三日까지에入京할豫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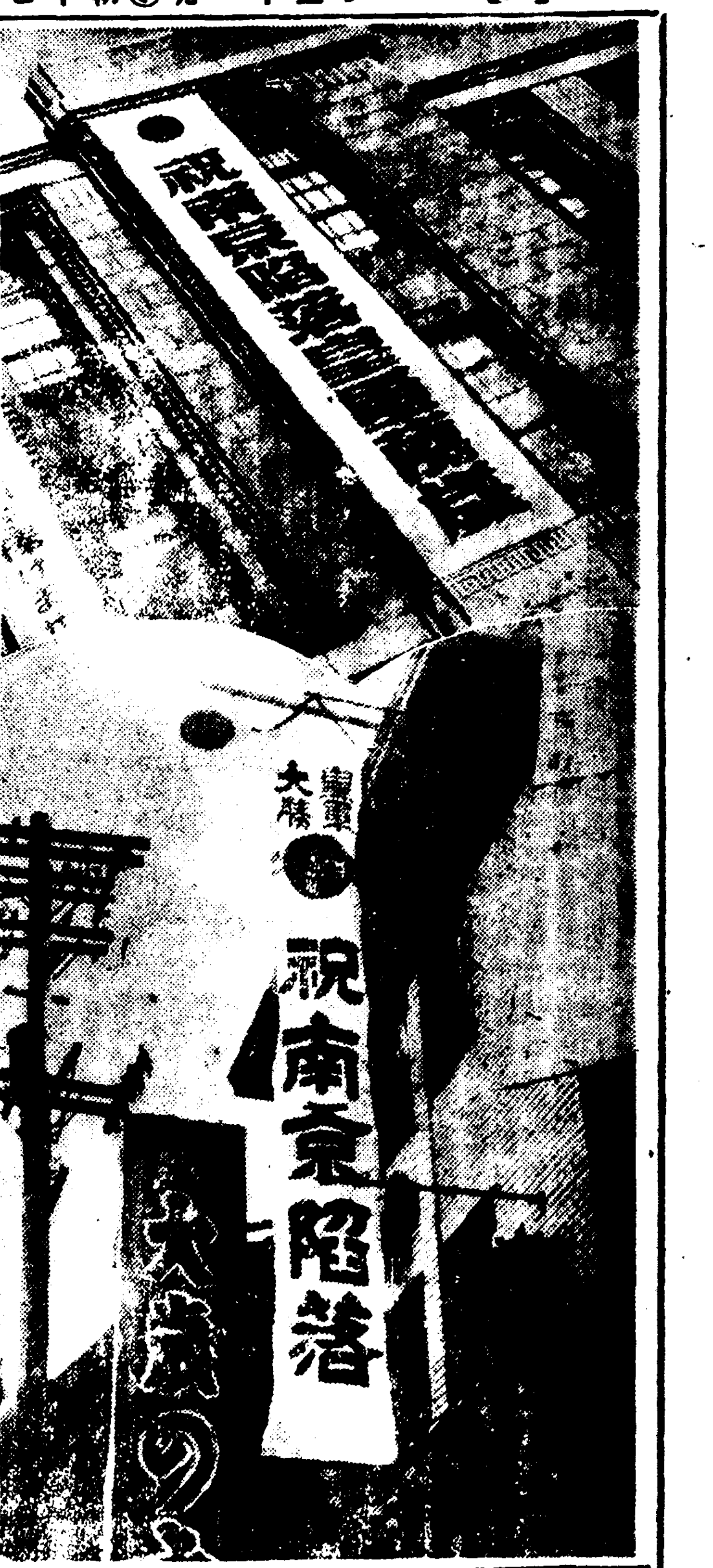
名譽의戰死 菅原梅吉隊長

【光華門城外에서十一日同盟特派員發】昨十日南京防衛의 牙城이라고도할만한 紫金山을 占領하고 南京攻略戰에 大殊勳을세운 富士井部隊의勇將 菅原梅吉隊長은 十日午前十時半 紫金山上에 놉게올리고 天皇陛下萬歲를三唱하면서 戰死하엿다 同隊長은 長崎縣出身이다

昭和12年12月12日
清新한包裝! 幽雅한芳香! 整髮의自由! 三拍子가초운 近代的整髮料
파리製보다優秀한
丹頂チック
純植物性 專賣特許
揃ひも揃ったり
●젊고明朗하게…… 毎朝업지못할整髮料!
國產最高基準品!


면도후거칠고 ...止해서면도後를 爽涼케 靑春의 若肌로만드는 다우링土種唯一의 丹頂아푸라쉐ー피구로ー숀! 면도後에本品을! 이것이紳士의常識입니다 (四五・七五)
머리의 비듬가려움은 整髮前에 반다시없애여주십시요 五六滴으로꼭스치는 丹頂ヘヤトリン本品은 獨逸은나 博士發見에依한 驚異的効果確實한 비듬자려움없애는것입니다 (四○ 一・五○ 二・七○)
整髮은 丹頂이第一입니다 헤푸지안케쓸수잇고 손에안검습니다 게다가 適度의粘調는 整髮의험크러짐을防止해서 一日을明朗케自然의色艶있는머리에정작용합니다
各百貨店・藥店・化粧品店에잇슴
金鶴香水株式會社

明日로擧行할南京陷落祝賀行事



京城을筆頭로 全朝鮮的으로擧行
奉告祭·旗行列·提燈行列等 壯觀이를祝勝節次

황군의 신속한 행동으로 단번에 지나수도남경을 못살으게되었다는 전선뉴-스가 본도하여진지 불과수일에 이제최후의 공성으로 단말마적저항을 계속하든 남경성도 십일밤으로 완전함락을보게되엿다 작십일오후에 남경의 각성문이 아군의 철제하에 전거를 당하고 각성문에 일장기를 휘날리어 상해선이 개시된지 불과사개월에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되엿다는 뉴-스가 날러들어 오자 이는사실상 남경의함락을 알려오는것으로 남경문제는 아직도 성중에 머물러잇서 완강한 저항을 계속하고잇는 시내잔적의 소탕이잇슬뿐이다 그래서 남경이함락되엇다는 소식은 전국적으로 국민환호의 대상이되어 그동안총독부에서 각도에 미리부터 전달한바에 의하야 준비가 진행되어잇든『남경함락의축하제』는 이제 전조선적으로 집행하게되어 명십이일에 일제히 경성을비롯한 전조선 각주요도시와 군, 읍, 면, 촌을 통하야 남경함락전승축하행사로 학생 생도들의 기행렬, 제등행렬, 봉고제(奉告祭)등이 버러질것이다 (사진은 거리에버러진 축승광경)

十七萬名動員!
飛行機로부터는祝賀삐라二萬枚撒布 市內에버러질大祝勝行列

적의수도 남경이 황군의맹렬한공격으로 국민정부의"건도십년개회"도허되히 함락되자 경성시내는 문자그대로 환호의물결속에서"축하일색"으로 물드려버렷다 십일오후"축하일색"으로 일중국의 국민적"씸볼"인남경성의 각성문이 아군의수중에들어왓다는 시내각사의호외가 나오게되자 거리거리에서 요란스런게흔들리는배달부의 방울소리에 가고오는사람들이 바뿐거름을멈추고"호외쟁탈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것도 장관을이루엇스려니와 북촌, 남촌을통하야 사람이만히모히는 카페 빠끼차정은물론 군데군데서 잇는신문속보판을 에워싸고 덤비는군중의 법석이란 축승 기분의『클라이막스』를 여실히말하여주는 전시풍경의한폭그림과가탓다

십이일의 남경함락축하행사를 압두고 금일의경성시내는 완연 잔채집 그전날의법석이다 명치정 주식가를위시하야 본정일대와조선인일대에는 거리거리에 축승의기발이어즈러이 바람에 휘날리고 전차속에서나 뻐스속에서나 관청에서나 회사에서나 모혀안저이야기란전부다 남경함락에 대한 이야기다

십이일 남경함락의 축하행사는 그동안총독부와가티 시내 팔만여생도의 총출동은물론 룡산재류부대의 시가행진과 아울러 일반부민의기행렬 제등행렬이『축승제』의호화판을이룰것이고 조선신궁광장에서 집행될 각단체의 전승봉고제와 부내 수개처에서 화포를 울려 전승의축하기념을 도할것으로 이날부내에서만 동원될인원은 십칠만명이나 예상되고 이날오후한시반에는비행사 신용욱(愼鏞頊)씨의 축하비행까지 하며 축하삐라이만매를 공중에서 뿌릴터이다

十二日行事 晴雨不計

경성부주최의 남경함락축하기행렬과 제등행렬은 비가오거나 눈이오드라도 예정대로 단행할터이라한다

各道에節次通牒

남경(南京)함락은 마침내되고 마럿스므로 총독부에서는 명십이일을기하야 전조선일제히 남경함락 대축하회를 개최하도록 십일밤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의명의로써 각도지사에게전보 통첩을발하얏다

中島中將에慰問電

지난칠일 남경(南京)공략의최전선에서 황군지휘중에 명예의전상을당한 중도금조오중장(中島今朝吾中將)에대하야 남총독(南總督)은십일밤아래 다음과가튼 위문전보를 발하얏다

출정이래 각지에서 용전분투하야 잘황군의 위무(威武)를 선양케한 무훈에대하야 경외의 념을표하며 이번명예의 전상을 당한것을 삼가위문함, 굴곡다사한이때 하로라도 속히쾌차하기를 비러마지안는다

南總督一場訓示
南京陷落後의決意에對하야 今朝全廳員을會集

총독부에서는 남경함락의 보도를 밧고 십일일아침은 등청하면서부터 축하의 기분이 전청원의 얼굴에 떠돌고잇섯는데 남총독은 등청하자 십일시반부터 약이십분간 청내의 관임이상 원팔백육십명을 제일회의실에소집하고 남경함락후리도 제국의일정한대방침에의하야 동아의안정세력으로서 더욱진출할것과 동시에 일반국민은 일종 시국을 인식하야 시난국복에 매진할것이라는 뜻으로 전승축하를 겸한 일대훈시가 잇섯다 그리고 총독의 훈시는 곳조속판서에전달하는 동시에각지방청에도전하야시국인식을철저히하기로되엿다

南總督으로부터 傷兵에祝賀餅

황군의대승 남경함락은 오로지 어능위(御稜威)의 혈호심에 의한것이나 그러동에도 축용한 장병의 활동이 또한컷음은 더말할것도업다 명십이일은 광영잇는 남경전황(戰況)보고와 국위선양의 기원제(祈願祭)에당하야 남총독(南總督)은 축정장병의가족잇는 상병(傷兵)에대하여 빠짐이업시 홍백(紅白)의 경사스러운떡을 나누어 상병의노고에 감사하는동시에 출정장사 가족의위문을하기로하고 조선신궁의 신전에 떡을비처 노키로하엿다

朝鮮軍新聞班主催로講演會

십이일밤 일곱시부터는 조선군사령부 신문반주최로 부내명치정 명치좌(明治座)에서 강연

과영화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연제는 다음과가타다
▲開會辭 芥川少佐
▲講演 實戰談 牧野大佐 岩崎大佐
題未定
▲映畫 日本陸軍『뉴-스映畫』
▲閉會辭 鄒少佐

白白教의魔手에 慘殺怨魂慰靈祭
"三百五十亡靈은눈을감으라" 東大門署主催로

부내동대문서에서 검거취조중인 백백교사건의 "살인부대"(殺人部隊)는 드디여 십일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어가게되엿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동서에서는 그들의손에 처절참절한최후를마친 삼백오십이나되는 생령(生靈)의 가엽은원혼을위하야 십륙일오후네시부터 시내 약초정(若草町)서본원사(西本願寺)에서 위령제(慰靈祭)를 거행하기로되엿는데 경찰서가 취조사건피해자를 위하야 위령제를 하는 이러한사(行事)는 적어도 조선에서는 처음되는 일이라한다

白衣勇士凱旋

북지의 전투에서 명예의 전상을한 장병○○명은 십이일 오후여섯시에 룡산역에 도착하기로되엿다

母校運命을붓들고저 儆新同門會蹶起
理事會構成員인責任을다코ス 十三日總會開催

지난여세날 경신학교리사회(儆新理事會)가 북장로교선교회의신입생불모(新入生不募)요구를 한대대하야 리사회의 한구성분자(構成分子)에 지나지안는 선교회에 이러한권한(權限)이 업다는 독단적결의(獨斷的決議)로 말미암아 경신의존폐는 선교회독단(獨斷)에 의존(依存)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 명백히되엿는데 따라 사회의다른 구성분자인 경성로회(京城老會)와 동교졸업생의기관인 동문회(同門會)의 존재가 동교의장래를위하야 대단중대한 역할을가지게되엿는데 동문회에서는 십삼일오후네시부터 동교에서 림시총회(臨時總會)를 열고모교운명에관한 중대한의론을하기로 되엿는데 거기서 결의될 모교절대존속(絶對存續)의기빨은 동교 문제에 엄대서광을 던질것으로 생각된다

學校配屬將校 缺員을補充
私校側派遣要求는愼重研究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시국관계로 결원중인 공립중등이상 각학교배속장교를 지급보충하고자 군당국과 협의중이든바 요지음전부 보충하도록되엿다 신배속장교는 오는이십일부터 일주일동안 이십사단(二十師團)사령부에서강습한후 명춘신학기부터전부배속할터이다 그리고 시국을반영한 사립학교방면에서도 배속장교의파견을 희망하고잇스므로 학무국에서는 명년신학기를압두고 군부방면과 어에대한 대책을 연구중이다

못미들雇傭군 [沈村]

본적을 평남중화군(中和郡)에두고 수년전에 황해도 봉산군사인면검천리(劍川里)에와서 동리하인노릇을하든 리창준(李昌濬)이란자는 지난십삼일 동리사람들의 모주배원을 사기하여가지고 어대로도망하고 말엇다는데 경찰에서는 지금그행방을 조사하는중이라한다

鎭南浦、天津間에 一小型汽船就航 每月三往復計畫

[鎭南浦] 북지무역에 중대관심을 가지게된이때 진남포항이천진(天津)과 가장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진남포항을 통하여 천진방면에 태왕이 빈번하게되엿슴으로 진남포기선회사(汽船會社)에서는 진남포와 천진간의 항로(航路)개시를 꾀하고 잇든바 이지음 구체안이 성립되여 명춘부터 운행을 개시키로되엿다고한다 배는이백톤급의 기선으로 일개월삼회왕복할계획이라는데 기선회사 태전(太田)지배인은 최근천진지방을 마치고도라왓다고한다

一齊히昇給
雇員傭人千五百名 鐵道局內에朗報

철도국에서는 십이일에 일급고원(日給雇員)이백팔십이명과용인(傭人)일천삼백열명에 일제히 승급(昇給)을시켯다 용인으로부터 일급구십삼명이 고원으로승격되엿다 또 일급고원으로부터 판임관(判任官)으로 승격시킨것은 오는 삼십일일에 발령하기로되엿다

役員九人으로 財團은八十萬圓
女子醫專今日財團手續 豫科一年、本科四年、明春六十名募生

지난오월중순에 고 우석, 김종익(故友石, 金鍾翊)씨의 유언에 의하야 나오게된 여자의 유일한 전문학교(女子醫學專門學校)문제는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든바 좌등(佐藤)의전교장의 일선노력에 의하야 드디여 그준비가 완료되여 십일일오전중에 창립사무소의 서택(西澤)씨가서류를 경성부청에 제출하엿다

이에의하면 팔십만원의재단법인으로 고인의호를따서 우석학원(友石學院)으로되엿스며 재단의리사와 감사는 다음의아홉사람으로되어잇고 교장은아직 미정으로되어잇다 학교는 기보한바와가티 고상(高商)의자리로 결정되고 금년안으로 그인가가나와서 명년사월부터 개교하게되엿는데 예과생(豫科生)은 이제도로서 명년봄에는 예과생육십명을 모집하게되엿다 현재의 의학강습소생도는 이를신설된학교에서 그대로편입해주기로 되엿다고한다

▲理事 佐藤剛藏 朴春子 鄭求忠 金鍾遠 劉英俊 李仁 金 佐藤
▲監事 芮宗錫 李申洙

女子醫生은 그대로引受! 佐藤醫專校長談

녀자의전의산파역인 좌등의전교장은 다음과가티말하다

지난팔월경에 미망인이 고인의 유지를 밧들어 내에게학교설립에대한 부탁을하엿습니다 그때는 별로안이엇스나 잘생각한다음 총독부학무국장의량해를어더 내가순전히 학교설립의역할을 맛게된것인데 그동안 순조롭게진행되어 오늘서류를 부청에제출하게되여 나로서는 매우기쁨니다 마침 오늘이 남경함락의 력사적기념일이라 어쩐지 이학교의상서로운 징조인듯하야 감개가 깁습니다 물론 녀자의학강습소라는것이 업섯스면 김씨의 기부도업섯슬것이며 강습생은 그대로 인수하겟습니다 운운

"日支事變뉴-스보담도 今後는歐洲情勢"
世界的戰爭記者닉카·폭커氏談 清津寄港싸이베리아丸話

【淸津】구일에 청진항에 드러온"사이베리아"환(丸)에는 지나변에 다리병으로 귀국하엿든 해삼위총령사관(海參威總領事館)의 광강부령사(廣岡副領事)를필두로 주일소련대사관(駐日蘇大使館)의 무관의 부인인"엠·카·팅크"부인과 상해전선(上海戰線)에 활약하다가 구주(歐洲)로도라가는 미국인기자(米國人記者)"닉카·폭커-"씨등이라고 잇서 부두엔 한동국제색(國際色)을 띄우고잇섯다

▲광강부령사는 신병으로 귀국한이후 즉시 삼하(杉下)전총령사의 "퀸랜드"공사(芬蘭公使)로 영전이되야 임지에도라가야할텐데 이번귀국당시에 쾌의 천연으로 부득이 이날에야 드러간다는데 저번 귀국당시에 다시는 "차베트"에는 가기싯타는 소감을적엇기로 재차부임에대하야 감상을드든지 여기서무슨말이듣든지 하고나면 "차베트"에 가서 곤난하다하며 함구불언-

▲"링크"부인의 부군인부관은 지난오월에 "유괘네프"씨와 동행하야 귀국한이래 소식이업고 검하야 숙청공작(肅淸工作)에넘어갓다는 소식까지 전하나 부인은 아모수심도 나타내지안코 자못쾌활한 얼굴을 보여준다

▲"닉카·폭커" 기자는 아직도 현지의 인상을 잊지안흔 표정으로 다음과 가티 지나사변(支那事變)에 대한 소감을말하얏다

『…강력한 일본군아페 아직도 유지한 지나군(支那軍)이적(敵)될 능력이업다는것을확인한이상 전쟁뉴-쓰(戰爭뉴-쓰)에 대한 흥미를 일헛다 이이상아모리 차운다드라도 승패는 벌서 나타난것이 아닌가차라리"구라파"에가서 그곳정세를보도하는것이 몇곱이 가치잇서보이기로 급작히도라간다…』운운

半年만에차즌 誘拐當한조카딸

부내신당정(新堂町)이백삼십칠번지에사는 고인상(高仁相)(四七)이라는녀자는 지난륙월 광희정(光熙町)이백삼번지 고동규(高東圭)의조카딸정순(晶順)(一○)을 꼬여가지고 경기도 김포군양촌면(金浦郡陽村面)서재성(徐在成)의처량씨(梁氏)에게 칠십원에파라먹엇섯는데 얼마전 정순의친척 임정례(任貞禮)가 전기양촌면에다니러갓다가 우연히 정순을발견하고 십일밤유괴범인 고인상도본정서원이 체포하얏는데 륙개월만에 일허버렷든 족하딸을차즌 고동규의집에서는 꿈이나아닌가하고 깁버하고잇다한다

DK를通하야 露語로放送
時局認識是正爲하야

경성중앙방송국에서는 십삼일부터 일본에서처음되는 로서아말(露西亞語)의『뉴-스』방송을 개시하게되엿다

종래 지나와로서아에서는 이번의사변보도를 간간히저하지 안케 방송하야 청취자의 인식을 그르치는점이 잇슴에 비추여 그동안 동경 경성에서 지나어로 영어로『뉴-스』를 방송해오든바 이번에는 로서아말로서도 이것을 할필요가 잇슴으로 경성방송국에서 총독부와 군사령부의 량해를어더 십삼일부터 당분간 경성 중앙방송국(DK)의 오십『킬로』제이방송과 청진(淸津)의 십『킬로』를 사용하야 매일밤오후열시오십오분부터 오분동안 방송을 하야 제국의립장을 로서아말을 아는 사람에게 중외에 인식식히게된 것이다 이로서아말의 방송은이번경성에서가 전국에서 효시되는일이라고한다

實業卓球戰 明日城大醫學部서

朝鮮實業卓球協會主催의 第七回全朝鮮實業卓球選手權大會는 明十二日午前十時부터 京城帝大醫學部에서 擧行할터인데 個人戰參加者는 五十五名이고 團體戰에는 八팀이 出場할터이라는바그 對陣은 다음과가타다

城大倶樂部
遞信局
倶 部
商倶 道
專 京
林 雞
電 京
督府 鑛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北海道附近에잇고 高氣壓은 北支那로부터 朝鮮에퍼지고 잇는데 其勢力은 弱하다 南朝鮮은 天氣가소호나 맨군데는 흐렷다 裏日本은 흐렷고 군대군대에 降雨가 잇스며 表日本은개엿다

豫報 今夜와明日은 개엿다 흐렷다한다

昨日最高 七度四
〃最低 零下二度
今朝最低 零下五度二
今日正午 二度三

스포-츠 氷上하키 對陣을決定

朝鮮氷上競技聯盟主催의 第十三回 朝鮮氷上競技大會는 明春一月四日에『스피-드』와『피겨-』競技를 擧行하고 同七日부터 十一日까지는『아이스하키-』競技를 淸凉里링크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大會 아이스·하키-對陣은 지난七日하키-實行委員會에서 다음과가티 抽籤決定하엿다

◇第一回戰
▲一月七日午後四時
A 京城高工對 京城醫專(A링크)
B 京城師範對 龍山中學(B링크)
▲一月八日午後一時半
C 大學豫科對 朝鮮鐵道(A링크)
D 普成專門對 京城帝大(B링크)
E 世富蘭偲醫專對 京城齒專(A링크)午後四時
◇第二回戰
▲八日午後四時
F 京商倶對全延專(B링크)
▲九日午前十時
G、A의勝者對B의勝者(A링크)
H、C의勝者對D의勝者(B링크)
I、韓和倶對E의勝者(A링크)午後一時
◇準決勝
▲十日午後四時
J、G의勝者對H의勝者(A링크)
K、I의勝者對F의勝者(B링크)
▲十一日=決勝戰 J勝者對K勝者(午後四時)

그리고 氷質이不良할때에는 順延하고 링크의設備其他氣溫狀態等으로 順序를다어서 行하는境遇도잇슬터이며 (I)戰에世專이 남어잇스면 十日에繰拔을行하고 J、K戰은 十一日에 決勝戰은 十三日에行하기로되엿다

잘듯기로유명한약을 단十전으로살수잇다 『大學十錢家庭藥』二十種

요즘 전선의방방에서 가장평판이조흔약이라면 이번대학목약본포(大學目藥本舗)에서 새로발매하는 대학십전가정약(大學十錢家庭藥) 스무가지라고한다 어떠든 이스무가지약은 모다일홈으로서효과가 대단히조코 도야의불량은 종래의오십전짜리나 삼십전짜리약만치나되는데 갑슨한봉지에 단십전이라고한다 이야말로일반수요자의일대복음이라고 아니할수업다 약을통캐사게되면경제적으로 부담이가벼워질뿐안이라 불행이병이들지라도손쉽게치료할수가잇서서 위생상참으로 깃붐일이다 약갑시단번에 … 된것은 제조원의희생에경의를표하여도 조흘것이다 이담부러는 병이들면 십전만가지고 약방으로달려가서자기의병에맛는약을 스무가지중에서가려사면 될것이다 또이스무가지약을 한봉지식만갓추어두면 당연히 이원으로 살수잇게되엿다니 불의에일어나는 병을막기위하야 각가정에상비하여두는것도편리할일이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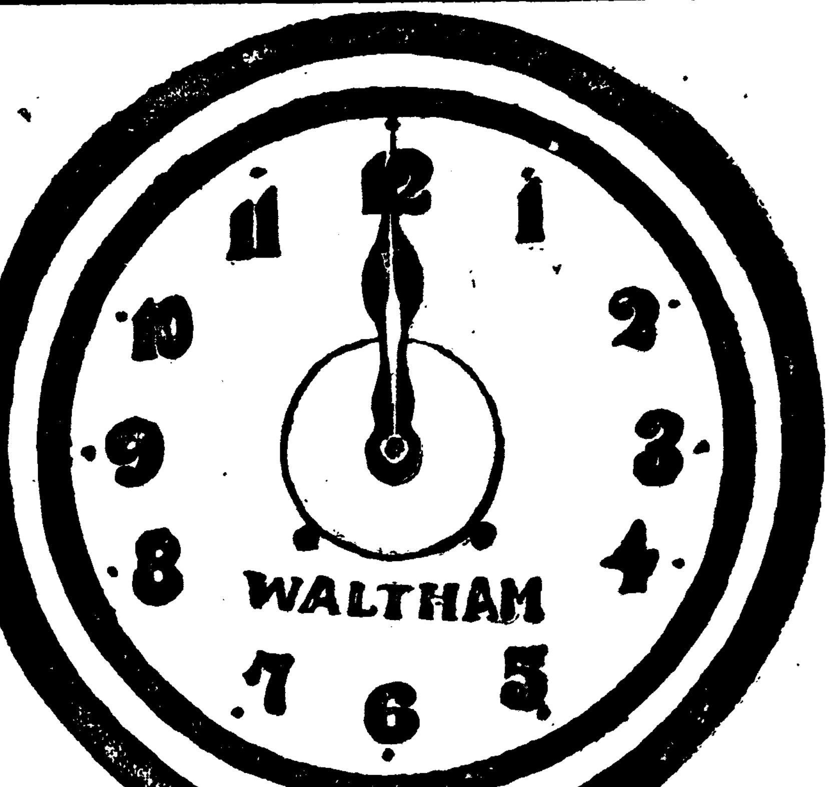
惡毒汚血 いろく病毒を 排泄淨化に
毒掃丸
二円三円五円 十円廿円卅円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製

營業種目
◇金庫 鐵扉類 一式
◇鋼鐵製書類家具一式
◇鐵製品修繕 一切
◇堅牢優美價格低廉納品迅速
御官廳御勤務諸官安庫
太陽金庫工業株式會社
大邱府外新岩洞一二九三 電話一五〇四番 (市內特約店元町八番地)
◇特約店取次販賣店及外務員大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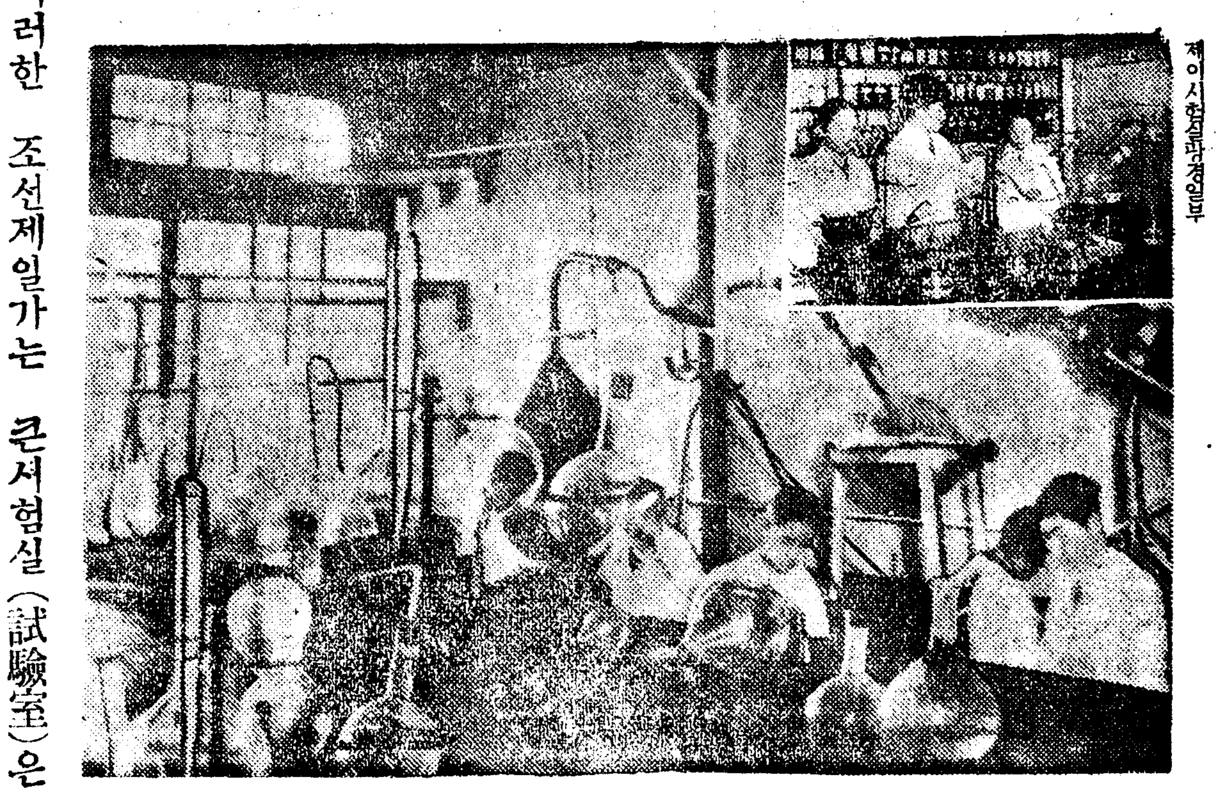
코나쁜사람
手術하잔코 압호잔케 自宅에서할수잇는 治療와 그方法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喘息、神經痛과 高血壓中風
血液의淨化로낫는다
不治아니다

(左는研究中의今津理學博士)
酒棒草 花柳病或은內臟의障害等으로 血液이濁하고나쩌저서循環이不順하고 體液을侵犯하는까닭에일어나는것으로 血液의混濁을除去해서淸淨케하고 動脈硬化의原因을 업새고 血壓을調整하고 循環을 조케하야 神經의障害等을업새면낫는다 決코不治가아니라는것을 多數實驗에依하야確證을엇고
淨化素
中風으로 高血壓、動脈硬化로 喘息으로 神經痛과 류마치로
今津化學研究所 大阪市阪急三國驛前



세계는 시간이 꼭맞는 월삼이 제일이오 림질 대하증 냉병엔 절대틀림업는 구로벨이 제일입니다



신성당제일서험실광경일부

이러한 조선제일가는 큰서험실(試驗室)은 신성당박게업다

무료혈액검사 지방에서 설비가불충분하야 혈액검사를못하시는분은 의사에게 피를뽑아 보내시면 무료로검사표를보내드리겟슴니다 (保健奉仕)

健康報國

惡疾殲滅

非常時克服

快報! 强力治淋新劑

비참!! (悲慘)

림균이눈에드러가면이삼사시간내에눈이멀게된다 림질대증하으로 잘못하면장님이된다 ◇엇지하여야 낫겟다는자신을 가저야한다

◎림질의원인

림질은 고노곡겡이라는 림질균을가진남녀의 성교(性交)로인하야 그균이생식기로드러가서 전염번식하야생기는병이오 ◉림균은엇더한것인가? 림균은 다른병균보다 특히강렬(强烈)하야 뿌리가(淋絲)성하게뻐처서점점번식 하는 성질을 가젓슴으로 날이갈사록 신체내부로기피드러간다 그러므로 방광염, 고환염(睾丸炎)『산증』섭호선염, 자궁내막염, 나팔관염, 란소염, 요도협착, 등 증세를 이르키며 골수에까지 뚤코드러가서 관절염이 생기고 모든 고통을 주는것이다

급성림질과 만성림질

급성은오좀눌때몸시아프다 림균이침입하야 오좀나오는길(요도)에서번식하면염증을이르키어, 헌데가나는고로오좀눌때몸시아프고 혹피도나온다 만성은아프지는아니하나고름이난다 급성림질이몃칠지나면 림균이점점기피드러감으로헌데는 일시아무나언제든지고름이나며 별별증세가병발한다 잘못하면 생명을일는다! 특히요도협착(尿道狹窄)가튼증세는 참위험하다 오좀길이꽉막혀바리는 증세다도회지에서는급히의사의 수술을바더일시오좀길을뚤키나할수잇거니와의사가속히오지못하면 오좀통이터저서생명을일는일이종종잇다 참위험하다만성림질이되면 그다지아프지는아니하고내버려두다가 별안간이런증세로변하면그야말로후회막급이다 항차병독을자손에게까지 끼치게하야죄업는후생에까지적악(積惡)을함에 이르나니참두려운일이다

고름은엇지하야 나는것인가?

사람의신체내에 병균이 드러가면혈액(血液)중에잇는 백혈구(白血球)가 그병균을 막어업새기위하야맹렬한싸홈을하는것인데 만일그균이강하면백혈구가노리혀 죽게되나니이죽은백혈구(白血球)가 곳고름이다이와갓치신체속에는 균을막어업새는힘이잇슴으로조곰만 그힘을도아주면당연히병균을죽일수잇다 ◉병리가(病理)판명되여 학술적치료원리가발견되엿다 림질의원인과증세가확실히판명되자세계적으로 치료계권위대박사의의견이일치되엿스며 따라서그치료원리가발견되엿다。

림질치료원리 【일】 림균은뿌리가 깁히백히는성질을가젓슴으로 내부로부터 그뿌리를업새지아니하면 거근되지아니한다 【이】 백혈구의 힘을도읍고 살균될약제가 들어가면 균이 깁이못드러가게 막을뿐아니라 전부몰사하야 바린다 【삼】 약여위장으로흡수되여신체각부를거처혈관으로 도라방광(오좀과갓치)을통하야 요도에까지이르면병균을 완전히전멸식힌다 (收斂殺菌)흡수되지아니한약은염증을다스리지못하며도리혀연약한점막(粘膜)을상하게한다。 【사】 국부에넛는 약을쓰면병균이그약을피하야 점점속으로드러갈뿐임으로 위험천만이다。 【오】 외치로세척, 주입약(注入藥)삽입약을사용하면깁이잇는 균을죽이기커녕약의, 부작용으로 병처가더욱더아파서견댈수업고 더욱림균을점점깁이 멀어너어 더욱위험하다 또남부끄럽게벌니고녀야하니쓰기가 제일불편하다 하물며 깁히백힌병균의 뿌리는결코 전멸되지아니함으로 다시재발되고 또한 그병균은 더욱강하게되여 별별악성완고증으로 변하게된다 뿌리가업서지지아니하면 다시새싹이나오는것은 보통초목과 조곰도 다름이업다 【육】 반다시 내복약이라야 완치된다 약이유기적 생리작용으로 신체내부로 흡수되여방광요도 심부속에 드러백힌 림질균의 뿌리를말여죽여야한다 흡수된약은 혈액중의백혈구(白血球)와합력하야 천하무적(天下無敵)의 강병이되여 아모리완고한악성림균이라도 씨도남지아니하고 전멸식힘으로 다시는 후환이업게된다 이와가치확실한 화설원리와 실지경험을토대로하야 수십년 고심연구한결과최리상적 합리적 명약이 발견되엿다 세계적으로 칭찬을밧고잇는 림질최특효 최특등고명한 책임제『구로벨』이이것이다

구로벨이 특효한특장은

(一)내복약인것 내복약이라야만속에드러백인림균을 전멸식힌다 (二) 약효가급속한것 합리적내복약임으로 그효력이지극히급속하다림질은 속히 고치지아니하면 조섭하기에 곤난하야 완치하기어렵다 단도즉입적으로 그뿌리를 속히잘러업샘으로 몃칠안되여 전멸하여버린다일주일이내에약효가난다 (三) 살균력이강렬한것 구로벨은 오십만배의물에 타도 이분간에 림균이즉사한다 (四) 절대로위장을해하거나 부작용이업다 내복약은 위장을 상할염려가잇으나구로벨은이염려를완전히업게한것이 특장이다 (五) 매독성 림질또는 림질로인한모든 병에다른약과한가지 병용하야도독특한효과가잇슴으로 아조깨끗하게병독을제하고 완전한건강을어들수잇다 ◉이러하신분은쓰시오 ▲늘 약을써도 낫지아니하고 다시재발된분 ▲급성만성림질 부인오좀소태 대하증 월경끌으지못한데하혈 ▲요도, 방광염, 관절염 (고환염)(산증)자궁내막염, 나팔관염, 란소염, 요도협착남녀냉병, 림독성으로된모든증세 ◉약갑 완고악성용십오원 만성중증용구원보통용오원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대금인환삼십오전될수잇스면 선금으로주문하시오 일각이라도 지체마시고 곳 쓰시오 추하고 독한 병을 전멸합시다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짐니다

支社大募集

大特典附規定書郵送

漢藥도具備

漢藥은朝鮮서神聖堂이제일싸다

最高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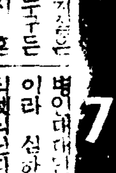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이 제일

일각의지체는 십년의후회!!

절대신용잇는신성당전문약을지금곳쓰시고건강한행복을누리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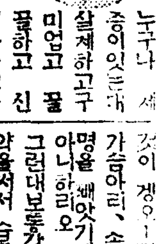
약가

완고악성에 십오원
만성에특제 구원
보 통 에 오원
경증급성에 삼원
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 인환 삼십오전
오래고생하시는분은 십오원짜리를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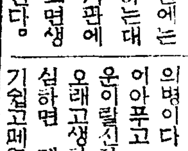
치질엔 엥구루가 제일

치질은 병이대단히괴로웁고 더러운병이라 누구든지 심하면혼몸이 큰구멍이뚤흔 식섀식난다보통수술하느니 단히일은 근질을하느니 상약을하느니하나 병을도려내지는못하다 치독파근을 속으로 업새지아니하면 다시작이나서 도진다 엥구루는 흉문에 넉키도하고 바르기도하는편리하고효력이강한약인대 이약을너면 약이녹아퍼저서 기괴는독에 진효하다암치질 수치질괴나고고름나는치질 가려웁고 아푼치질탈항증에 잘듯슴니다 약갑 중한데는 삼원 경한데는 이원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보내드립니다 병이좀심하면 삼원짜리를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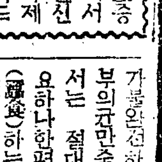
속병 체증엔 겡오-가 제일

누구나 세중이잇는대 살제하고구미업고 꿀꿀하고 신트름하고 배압프고 설사하고가슴이쓰리고 생목이올나오고 배가부글부글하고 방기가 자지고 하면 체증이라곳안고치고 꽉맥키면 즉사한다맥켰는관격도 곳뚤는것이 겡오-뿐이다 가슴아리, 속병, 체적이되여 생명을 빼앗기게되니 엇지두려웁지 아니하리오 그런대보통가스사고일시적인위장약을써서 습관성으로 중독이되야 항상약을떼울줄모르고병객으로일생을맛치는일이잇다 겡오-(KENGO)는 약효위대하야일시적이아니고 비위를보하고위장의근본조직을다시 소생식히고소화를잘식히는세가지작용이잇다 그성분은세계에서 유명한『훼베-』제가만히들고 특효한신발명약제가합리적(合理的)으로드러서 리상적(理想的)효력최고무한 위장약이다 약가(價)도 다른약보다 만흐나병이잘낫고 를보하야 살이찌고 음식을 맛잇게먹게되니 도리혀갑지어니한고명한 약입니다 위장약으로일본주입품에 일권자리『겡오-』박게도엇스나약효가 대단히효한까닭입니다, 수십년된체적이한제에효력을보앗스니삼신산불사약이라는감사장까지오는일이잇슴니다 별별약을써도 신통치못하야고통하시는분은특한재써보시오 꽉만족하리다 약갑완고증엔오원중증엔삼원 경증엔이원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병이심하면오원분을쓰시오



해소기침엔 에치삐-가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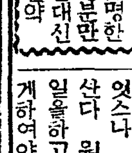
사람이생명이잇슬동안에는 호흡을하는대 이호흡기관에 병이잇스면생명에관게가된다。 해소, 기침, 담천식증은호흡기관의병이다 감기로기침을하야도목이아푸고 끌이쏘다지는것갓고기운이랄신하는대 해소기침병으로오래고생하면 갈수록하는것이다 심하면 제일무서운폐병으로변하기쉽고폐염이되여우려할일도잇다 신성당명약『에치삐-』(HP...)는호흡기관을 윤택하게하고담을일맛지처서업새고염증을거두게함으로 수십년된해소, 천촉증에도 효력을엇는명약임으로보통기침병은 몃칠안써도효력이잇다 호흡기병으로해소, 천촉, 만성기관지가다루, 급성기관지가다루, 경해, 기관지노루기관지확장, 백일해, 등에신효합니다폐병기침에도 좃소 약갑 완고증에 오원 중증에삼원 경한데는 이원이옹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옹 당일로보내드리옹 약은환약인대물약보다멧배더조슴니다병이 좀심하면오원분을쓰시옹



폐병 늑막염엔 나오뻬-(NAOPER)가 제일

효력보증 세계에서 유명한신 발명약제 가만히드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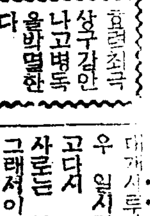
폐병은 난치의병으로 일년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데종래의치료가능완전하야다 입때까지는 환부의균만죽이랴고드렷스나 그래서는 절대로안낫는다 살균도필요하나한편으로 몸도보하고잡식(營養)하는 부분을 막는법이새로발명되엿다 즉살균, 보혈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일시에하여야된다 종래에는 여섯작용을 시키는데 여러가지로 애를썻다 제일의과음식과일광욕과산소로법카루슘료법등이잇스나마음대로안되엿다 그런대이여러가지작용을일시에 다하는참신효한약을발명하엿다 즉 삼기의중병으로고통하는환자도 이약을 먹기시작하야 단기간에대효를본 참신기한약이여다 이러한자신이 엿슴으로 안심하시고 별별약과치료를하야도안나어 고통하는분은일시타도속히『나오뻬-』를 꼭쓰서오 구미업고잘체하고 거칠하고혈담을뱃고 피를 토하고숨이차고원기업고가슴이아푸고 열두리가결니고수족이찬분들은쓰시오 (약갑)삼기용이십원 이기용십원 초기용오원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서면당일로비밀이보내드립니다.



보양을 젊어지는약 카이자-(KAIZER)가 제일

동서양에서 제일유명한 약의정분만 만히드려서 발명한약

사람은 보통백살까지는수명이 잇스나 정력이쇠약하야 오래못산다 원기가왕성하야 하고싶은 일을하고 인생향락도 영구히잇게하여야한다 새로 신발명한가이자-는 신체의쇠약한 조직을다시 소생시키는 보음보양젊어지는약으로 양기를 왕성하게하고 정력을씩씩하게하는명약이다 회류병을 일엇든지 과○과로하엿든지 선천후천으로 몸이약한분 속히되고쾌감업는분 음위신경약한분은 속히 가이자-를 한제만 꼭쓰시오 약갑중증이십원 보통용십원, 경한데오원약은 환약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증세가좀심하면 이십원짜리를 쓰시오



매독엔 푸로다-(PROTER)가 제일

매독은 선천후천 두가지로선조 유전또는 전염으로발생하는 여 세상제일무섭고 지독한 병인데

효력최극 상구감안 나고병독 을박멸한 다

대개서투른주사는 일시적눌리지나 완치가안되고다시 도지게되니 뢰백륙호주사로는 불완전한것이 증명된다 그래서이불완전한점을 업새기위하야 주사가아니고 먹는약으로 단기간에 효력을 볼수잇는매독약푸로다-(PROTER)를대발명하엿다 내복하야 약기운이 피로드러가서괴속에잇는균을 씨도업시 업새버리는 특장이잇다 보통병과 다르다 별별치료로도안나어 고통하시는분은 안심하시고꼭쓰시요 장담합니다 이푸로다-는절대로구감안나고 몸에해가안되고 괴속에잇는 균을 죽이는 고명한약이오니안심하시고속히쓰시오 남녀국부가 허렷스며 가려운데눈이희미하고 팔다리가 쑤시고목이쟁기고 머리가빠지고 여기저기종기가나고도창병 감창코가허러드러가는데등에신효합니다 약갑완고용십오원중중용십원경증용칠원오원약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병이좀심하면십오원자리가낫습니다

ケンオー 겡오- 元王
總本舖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資本金百萬圓朝鮮서第一큰藥業會社
京城西大門停留場前 서대문제일큰벽돌집
電話光化門長三三四番·三四九九番·一○七七番
振替口座京城四九五○番

少年朝鮮日報

보십시요

歷史이야기
후삼국통일
文一平先生

왕건은 고려라는왕조(王朝)의 맨첫임금이십니다。세상에서 이분을 고려태조(高麗太祖)라고도 부르고 또는 왕건태조(王建太祖)라고도 부릅니다。

신라고려 갈러젓던 세나라가 왕건태조로 말미암아 다시합해서 고려라는 한나라가되엿는데 이것을 왕건태조의 후삼국통일(後三國統一)이라고합니다。

여러분 후삼국이 무엇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하나는궁예의 후고구려요、하나는 견헌의 후백제요、그리고 하나는 진성녀왕 이후 신라입니다。

왕건 태조가 처음에 궁예의 부하로 일어나서 궁예를 쪼차내고 자기가 궁예의후고구려를 차지한 후 다시 견헌의 후백제와 신라까지 온통 차지하게 된것입니다。지금 그래력을 대강 말하면 아래와 갓습니다。

맨처음 왕건태조가 십구세(十九歲)의 소년으로 궁예에게 가서 철원태수(鐵原太守)라는 지방관가튼 벼슬을 어더햇습니다。그리다가 그후 승차하야 장수가 된지 십구년만에 임금이 되고 임금이 된지 또 십구년만에 후삼국을 통일하야 고려가 비로소 완전한 나라가 됫습니다。

왕건태조가 이러케 통일을 일운것은 만흔애를 쓴 결과로 된 것이나 조흔기회를타서 잘된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궁예가 무도하야 신하를 만히죽이고 내종에 자기 안해까지 죽이매 천하인심이 모두 불복할때를 타서 왕건태조가 일어나 궁예를 쪼차 내고 후고구려의 임금이 된것이 아닙니까。

왕건태조가 후백제를 언제나 노려 보더니 후백제 임금 견헌이 그아들과 부자간 불화가 생겨 서로 다투는 틈을 타서 왕건태조가 후백제를 처서빼아섯습니다。

그리고 신라에대해선 쇠약해진 틈을 타서 매양 잘달래여 신라임금 김부왕이 저절로 와서 고려에 항복하도록 수단을 썻습니다。왕건태조는 이와가티 조흔 기회를이용하야 혹은치기도하고 혹은 달래기도하야 후삼국통일이 라는 거룩하고도 큰 공을 일우웟습니다。

코끼리타고산양

인도에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큰구렁이 공작새 원숭이…… 할것업시 별별짐승들이 만히 납니다、그중에서도 호랑이 사자와가튼 맹수가 만히 잇기로유명한데 그러니만큼 사냥도만히합니다。산양하는데는 물론 총을가지고 하겟지만 코끼리 잔등에올라타고서 산양을 하게되니까여간 즘생들은 맴버야 견이안날겝니다。사진은 유명한 산양군들이 서로누가 산양을 만히하나내기를 하느라고 인도의 거문산곰으로 산양하려떠나는것입니다 제일 산양잘하는사람은「카디안」배라는 우승배를 타게됩니다。

아버지 업시 생긴 아들
깨구리에 실험해서 성공

홀에미나 홀애비자식을흔히 홀의자식이라고욕하지만은 그것도어머니나 아버지죽엇거나 어듸갓단말이지아조업단말은 아닙니다。사람은물론이요 동물이란 동물치고서는애비와 에미가업시제몸이 생길수는업슬것입니다。그러나 꼭애비와 에미가잇서서만생기는것은 아니니위선꿀벌도 그조흔예입니다。꿀벌중에는새끼만치는 암펄이따로잇서서 수펄과교미(交尾)하야 가지고알을 쓰는데 이 수펄이 되는 알은 애비가업시 에미만으로 생기는것입니다。

이런데서 생각이나서 동물학자 들은 애비 업는 동물을 맨들어 내려고 여러가지로 시험을 해 보앗습니다。위선 깨구리의 알을 백금 바늘로 조금 찔러본즉 그 십분지 일쯤 제대로 분렬(分裂)되는 지라 그것을 잘 발육(發育)시켯더니 어느 정도까지 깨꾸리 모냥으로 자랏답니다。아조 하등 동물에는 어떤 약으로 화학 작용만 가하면 숫놈의 정자(精子)가업서도 자라납니다。더 연구되는데 따라서는 고등동물에서도 그러한 현상이업스리라고 장담하지못합니다。그런데 식물은 어떠냐 하면 그역시 마찬가지 입니다。조안화(朝顔花) 베、밀、로마도등이 모다 그러케 됩니다。본래 식물은 숫 그꼿에다서 수컷의 성질을 가지는화분(花粉)을 바더서 만 열매를 맷는것인데 화분을 밧지안코 저혼자 열매맷는단말입니다。그래서 생긴 그씨를 심어 보면훌륭하게 움이 도다서 꼿이피고 열매가 열니다。

살에붓는 전기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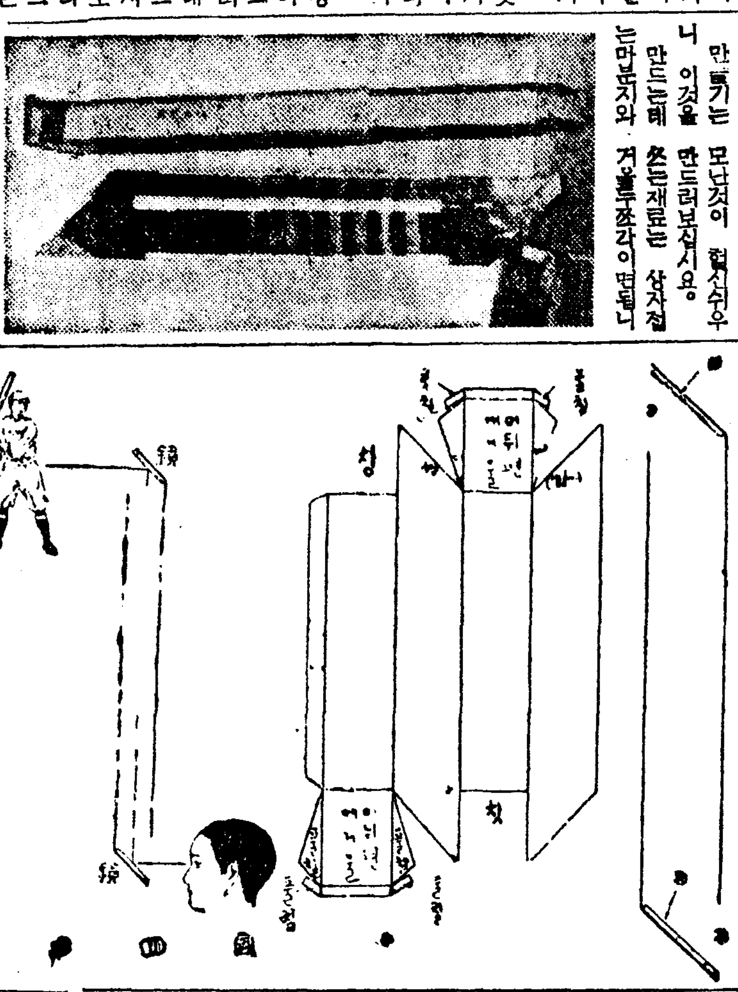
헌 엽서나 그러치안흐면 그와비슷한 두터운조희쪽을 화로불에 쪼여서 땃땃하게한다음 손바닥으로 싹싹문질러가지고 코등이나 이마에 대여보십시요 조희쪽같은 딱드러붓흘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찰전기」라하야 자미잇는 요술입니다 무어이던지 여러번문지르면 거기에 전기가 얼어나는까닭입니다。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깜작 놀라시도록 요술을해 보여드리십시요

담넘어의것을 환하게보는수
상자곽과석경만잇스면돼요
『페리스콥』맨드는법

지난번 영국황제폐하의 대관식에는 그거창한잔치와 행렬을 구경하라고 세게각국으로 부터 여러사람들이 모여드럿섯습니다 그리하야 일반백성들도 길거리에서 이광경을 배관하는데어떠케 사람이 만히모엿든지 길거리의 구경하기조흔 자리는 아주 벗싼요금을 내고도 구하기어려웟습니다。

이러케 되고보니 뒷줄에 서잇는사람은 자연남의뒤에 서서보지안을수 업게되엿스며 그나마 아페선사람의 머리가 가리워서 도무지 볼수가업섯습니다。

키가적은 사람은 아무리 쟁기발로서도 볼수가 업섯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낸것이『페리스코ㅣ프』란것이엿습니다。여러분도 운동회나 씨름대회가튼데서 구경할수업거든 이것을만드러가지고 큰사람들의 등뒤에서라도 아조훌륭히 구경할수잇도록 하십시요『페리스코ㅣ프』라는것은 거울의 원리입니다。그림 제일도에 이거울을 들고보는것이 나타나잇습니다『페리스코ㅣ프』는 동글게도 할수잇스며 모나게도 할수잇는 것입니다。만들기는 모난것이 헐신쉬우니 이것을 만드러보십시요。만드는데 쓰는재료는 상자접는마분지와 거울두쪽가리면됩니다。



마분지는 될수잇는대로 좋은것을 골라쓰되 이것이업거던 포장지는 두터운조희라도 조흡니다 거울조각은 적은것이 엇스면 은것은 칠을해야합니다。거울조각은 적은것이 잇스면 그것을 리용해도 조흐나 도회지이면 유리가게에 가서조금만 끈허서사도 조흡니다 그러치안 만내면 표통히 끈허줄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제이도에서 보는 경파가티 하면됩니다

거울을 아래와우에 달고 각창을여러두어야 합니다。

마분지 접는방법은 제삼도와 가티합니다

(一)(二)(三)(四)는 모두 풀칠하야부치는것인데(一)은 흥정으로 부치는것이며(二)는 거울조각부처노흘 (가)에 붓치는것입니다

(三)은 거울이창으로부터 바갓헤 구울러내리지안케하기위하야부치는것입니다。

거울을부칠때는 엷은조선조희로 가장자리를 붓치도록 하십시요

이리하야 차근차근 제작하면 훌륭한 페리스코ㅣ프가되는것입니다 이페리스코ㅣ프가 잘보이는리치를 설명하겟습니다。

이페리스코ㅣ프를 드러다보면 어째서 멀리잇는 경치가잘보이느냐하면 그림제재와가티 거울이 서로맛비치여서 그러케되는것입니다 멀리잇는경치가 페리스코ㅣ프우에 부튼거울조각에빗치면 그거울에빗친경치는 다시 페리스코ㅣ프아래부터잇는 거울쪼각에드러갑니다 이리하야 아래부터 거울을드려다보면 평상가티보입니다。

전쟁에서는 군대들도 페리스코ㅣ프를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은모두 정밀한방원경을 달아둔것입니다。

잠항정이라는 물속에숨어다니는 군함에는 이것이만히 달려서 페리스코ㅣ프를대기만 물우에올려노흐면 물우의일이 환하게보이는것도 리치가갓습니다。

제작하는데도 만히 힘드지안코 페파로서도 재미가잇스며 실지로쓰기도 편리할뿐안이라 누구나간단히 만들수엿스므로 하나어듸 시험사마 만드러보실생각은 업습니까

기관차를 뜨덧다마첫다
기차공장

연기를 펄펄 뿜으면서 뒤에다가 차를 멧대식이나 달고도 끗떡업시 다라나는 그 큰기관차를 겨우 열시간동안에 전부 다 뜨더놓을수잇다고하면 여러분은 놀라실터이지요? 기관차를 한번 뜨더 곳치는데 수선만해도 한달이 넘어걸리든것이 그다음에 보름이걸리게되고 지금은 닷새만하면 충분히 뜨더 곳칠수가잇다고합니다。이제 기관차뜨더곳치는 사진을설명하면 다음과갓습니다

(1) 오전일곱시부터 일을시작해서 여덜시가되면 차를늣기 시작합니다。

(2) 기관차하나 뜻는데 직공이 스물여섯명이 걸터서일을합니다。

(3) 기관의 머리잇는데를 까스불로 전부 태워서 소독을합니다。

(4) 열한시에는 기관과 차가 따로 따로 떠러지게됩니다。

(5) 죄다 뜨든 부분품은전부 소ㅣ다 끌는물에 끄려서 기름끼를 빼고 정리합니다。

(6) 거테 쌋든 쇠는 모다 벗기고 기관만 갓다가 제관공장에서 수리하게되는것입니다

(7) 기관속에는 큰통 스물여덜개와 적은통 구십개가 드러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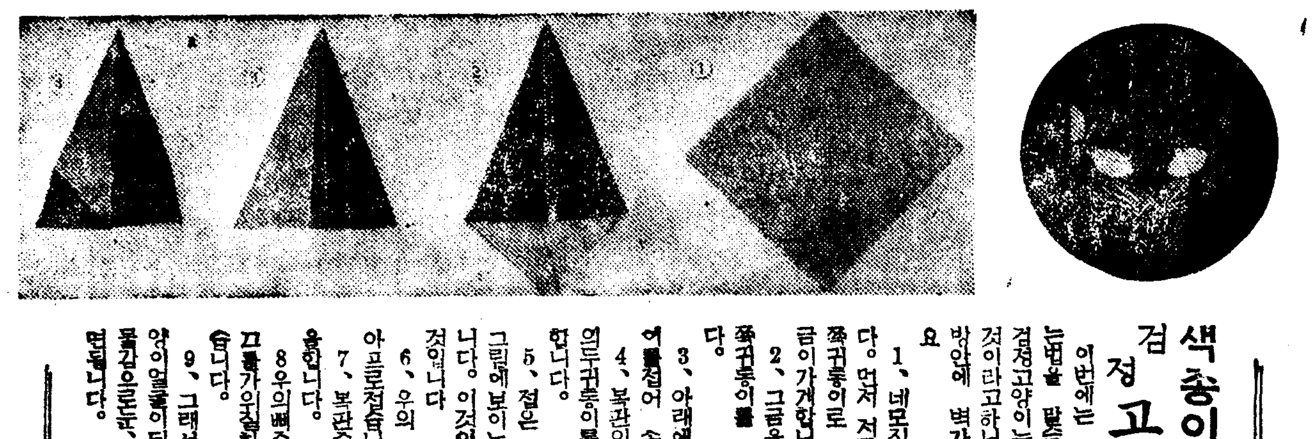
이러케해서 오후다섯시까지 일을 다맛치면 한대의 기관차는 제모도 저리됩니다。그 이튼날 각부분품을 다 수리하고 정리해서 너흘재는 다시 맛치기시작하는데

(8) 차ㅅ바퀴의수리

(9) 맛치기를 다하면 그적새는 아주 소상하게 검사를 밧습니다。

(10) 나흘째되면 아주 다되여서 또 뒤에 차를 달고 다라나게됩니다。

색종이접기
검정고양이



이번에는 검정고양이 접는법을 말씀드리겟습니다。검정고양이는 행복을준다하는것이라고하니 깨끗이접거든 방안에 벽가튼데 부처둘까요。

1、네모진종이로 접읍니다。먼저 저쪽귀퉁이에서 이쪽귀퉁이로 접어 한복판에 금이가게합니다。

2、그금을따라 오른쪽의 쪽귀퉁이를 접어맛닷게합니다。

3、아래에금이잇는 구퉁이를접어 속으로넛습니다。

4、복판의줄을따라 아래의두귀퉁이를 접어올이가게합니다。

5、접은 그귀퉁이를펴서 그림에보이는것처럼 되게합니다。이것이 나중에귀가될것입니다

6、우의 뾰족한 종이를 아프로접습니다。

7、복판중간쯤에 가위질을합니다。

8、우의뾰족한종이접은 그끄트가위질한 구녁으로 끗습니다。

9、그래서 뒤집으면 고양이얼골이되는데 거기에 새몰감으로눈、입、수염을그리면됩니다。

童話
아저씨편지
丁明南

한마실 동무들과가티 떠들고 짓거리며 압서거니 뒤서거니 패지어 고개까지왓슬때엿습니다。

『어차!』

갑자기 덕용이가 옴틀서며 뒤통수를 긁습니다。

『왜 뭘 이즌게 잇니?』

한애가 이러케 뭇자 또 다른애는

『오늘체조시간 들엇는데 운동모잘 안가저 오니?』

『그럼 먹통을 노코 왓는 게구나』

하며 아타마치러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것이 운동모자는 모자안에 겹처쓰고 잇스며 먹통은 호주머니속에 간직해놓엇습니다。

『허ㅡ 그게 참!』

덕용이는 또한번 입맛을 쩝쩝 다시며 중얼거렷습니다。

어제밤에 등넘어아저씨가 집에오셔서

『덕용이 냘 학교갈때 좀 들려라 편지하나 부칠게 잇스니……』

이러케 일른셧든것입니다。조흔 편지한장 부치재드롭 로운것이 학생이나 장꾼아니면 한나절 품버리며 십리되는 읍내까지 가야되는 것입니다。

『부듸 잇지말고 들려가거라 응 낼 부치지안흐면 안될거니 꼭…』

아저씨는 몃번이나 단단히 다지셧든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고기를 먹엇나! 까맛잇고 덕용이는 그대로 와버린것이엇습니다。

고개는 넘으면 학교길반쯤 됩니다。

그러니 고개에서 마실도오리 학교도오리 어려웟이지요。

『이걸 어떠커나?』

덕용이는 또 뒤통수를 긁습니다。마실까지 다녀오자니 학교는지각입니다。그러라고 그냥두자니 신신당부하시든 아저씨뵈올낫치 업고…… 이러케 하기도 저러케 하기도 참말 딱하엿습니다。

『에 한번 땀 좀 내보자』

『순호야 내책보좀 가지고 가거라』

어떤 결심이 스자 덕용이는 책보를 내매끼고 마을로 뛰기 시작하엿습니다。

덕용이가 이마 땀흘리고 동구박 산모퉁이를 돌다 뜻박게 아저씨와 마주첫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시유?』

『아니 너 웬일이냐』

아저씨는 두루마길 입으시고 읍내로 편지부치러 나오시는길이엇습니다。그러나 숨가뿌게 헐덕헐덕 되도라오는 덕용이를 보고 너머나 갸륵해서 한참은 먹먹히 아무말슴도 못하시엇습니다。

『애 참 덕용이 수고하단』

『아저씨두 원 별말슴을…』

편지를 바다쥐고 덕용이는 또 내달앗습니다。덕용이가 학교문안에 들어설때 마침 알마게 상학종이 땡땡 울렷습니다。(끗)

얼른보면조악돌
이러케적의눈을속이고 사라가는이상한식물들

동물가운데는 그빗갈과 몸의 가자기의 살고잇는 집이나그주위의모양과 비슷하야 자기몸을침범하랴는 적의눈을 속이도록된것이 만습니다。이것을 보호색(保護色)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보실수잇는 자벌레라는 버레는 나무가지에 부트면나무가지와 조곰도 다르지안습니다。이것을 의태(擬態)라고하는데모다 자기몸을 보호하기에편리하도록 된것입니다。이러케제몸을 감추도록 된것을 요사히에는『캄푸라ㅣ쥬』라고하는데전쟁에서 병사들이 모자와복장에 나무가지나 풀입사귀를언저가지고 단이는것과 맛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다니는군함에 적함에게 들키지안토록하고 각금 빗갈을가라 칠하는것과 비행기가 남경이나 상해의 적군의 도회지공중을 날너서 폭탄을 떠러트릴때에도 그때 그때의 필요가잇다면 날개빗갈을 변해가지고 날러가는것이 모다이러한 리치입니다。

동물에만 보호색이잇고『캄푸라ㅣ쥬』가 잇는것이 아니라식물(植物)에도 이러한것이 잇습니다。

그것은 남아애푸리카 련방과서남 애푸리카의 건조지(乾燥地)에 나는 식물로서 여기사진으로 그레뚤드러 보겟습니다

사진첫재는『오랜지』라는 애푸리카의 큰강변 석탄속에만자라나는풀입니다 거죽으로젓쌀로 더피여잇스며 풀맹이와조곰도다르지안습니다

그다음은 입사귀에 전복진복한진이나와서 모래를 더펴쓰기에 편리하게되여잇는풀입니다。이풀은 모래바테자라나고잇습니다。

셋재번사진은 재ㅅ빗나는 충충한바위들우에 나는풀로서 빗갈이 꼭바위돌과갓습니다 그러므로 이풀을 뜨드려가던 식물학자들도 아라보지못한다고하며 아조드물게나는 귀중한풀입니다

넷재사진은 이러한풀에도 현화식물이라하야 꼿피는풀이잇는데 끄즌여간아름답지안습니다。

다섯재사진을 보십시요 회삭로가튼처노흔것이풀이고 그주위에잇는것이모다 풀입니다 빗갈과모양이 풀맹이와조곰도 다르지안습니다 눈을따고 드려다보십시요

…처럼 구별해내지못할것입니다

우습단지

달속에 사는사람

아들 『아버지 달속에 사람이산다는말이 정말입니까』

무식한아버지 『정말이구 말구』

아들 『달이적어지면 사람은엇더케됩니까』

아버지 『사람도 적어지지』

또오겟네

시골서 서울구경을와서 생전처음으로 전차를탄 할머니이차장에게 호대를바더 깃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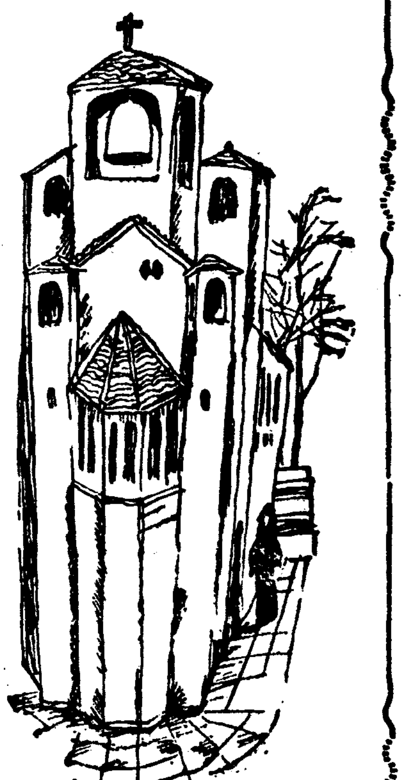
『여보게 임자는 젊은사람으로는 잘낫네 도라갈때도 임자 전차를 타겟네 자 잘잇게또 오겟네』

學藝

鐘聲

大衆과 文學
三頭蛇

가장 널리 또 깁피 一般大衆에게 影響을 끼치는 文學이 잇다고 하면 지금도 新派、玉樓夢等 書小說의 그우를 넘어나갈것이 업다。朝鮮에서 새로운 文學이 發達되고 新文學[illegible]지는 적어도 近二十年의 歷史를 가젓건만 大衆에게 미치는 그 影響이 稀히 微薄하다는것은 以上의 事實로써도 立證할수가잇다。勿論 거기에는 一般大衆의 知識水準이 그다지 向上되지못한것、朝鮮人口의 大部分을 占하는 農民들의 生活 그自體도 아직껏 舊來의 程度를 벗어나지못한것、거기따라 그들의 理解나 趣味도 稀小하며 나오지 못하는것、더구나 古典으로서의 書小說이 조흐나 그른 能力을 끈는것等이 모다 原因을 이루겟지만 現下의 文學人들로서 그들에게 읽히어질만한 무엇을 提供치 못하는것이야말로 가장 큰 原因이 아니랄수 업다。오늘 文學人의 對象삼는바는 大衆 文壇乃至 그 [illegible]한 一部 層에 制限되어잇는것이 事實이매 그 制限은 어느듯 굿센 障壁으로되야 이제와서는 大衆히 끈어버릴수 잇는 사람도 또 敢히 그런 엄두를 내는 사람도업는 形便이다。野談이 왜 流行되는가 古談이 왜 歡迎되는가。그러한것은 藝術이 아니라고 冷笑하지만말고 一定한 對策이 잇서야 할것이다。몃개의 作家가 野談으로 轉向하얏다는 그事實도 單純히 그 作家를 비웃거나 排斥할 性質의것은 아니다。文學人의 [illegible]을 反省할일이 아닌가 한다。그러타고 내가 이자리에서 그들의 轉向을 辯護하려는것은 決코 아니니 文學人 스스로 文學의 [illegible]을 넓히는 그러한 行動이야 本來 取할것이 못된다。文學이 거기에 머물며 그大衆化를 努力하야 주엇든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illegible]을 다 하얏슬수가 잇섯슬것이라고 생각한다。 × ×



匈牙利出生의 樂聖 「리스트」의 一代記 (四)
洪蘭坡

어떠한 의견의 충돌로 인하야 그후에도 가끔가끔 두사람사이에는 론쟁이 끈히지 안케되자 하루는 그의친구인 불란서시인이 중간에 들어서 화해를 식히라고 권고해본일이 잇습니다 『여보게、『딴테』와 『빼아트리체』의일을 생각해보게』그시인이 자기애인의말을 얼마나 감사하게 듯고 생각햇는가 자네도 『딴테』가 되어보게나그려 그리고 부인께서도 『빼아트리체』가 되어보십시요그려』하고 말할때에、『리스트』는『흥 『딴테』는 무엇이고 『빼아트리체』는 다무엇인가두말할것업시 『딴테』란이 자신이 『빼아트리체』를 창조해가지안흐면 안될것일세』하고 소리쳣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구르』부인과의로ー맨쓰는 그불꼿이 꺼지기 시작햇습니다。그러나 『리스트』의 정열은 결코 다한것이 아니엇스니 『따구르』부인은 그당시 여류작가로일음이놉흔『조루쥬·싼드』와 친하게 지내던관계로 어내이든『싼드』의 집에서 두류한일도 가끔잇섯습니다。그때에 『싼드』에게는 『쇼팡』이란애인이 잇섯슴에도 불구하고 그는가끔가끔『리스트』에게유혹을 해옴으로『리스트』는 몸을 피해 다러난일도 잇섯다고하며 또『따구르』부인과『싼드』의사이도 자연히친접 머러저갓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두여자 사이의 질투에 지나지안엇고、두사람의 천재음악가 사이에는 끗까지리해(理解)와 동정이 계속되엿스니、여기대해서는 후일에『리스트』가 그의유작할부으로『쇼팡』의 전기를쓸때에『쇼팡』이나『싼드』에대해서 어듸까지나기픈사랑과 동정으로써 쓴것을보더라도 대강 짐작할수잇는 일입니다。

『싼드』에 대하야는 다음에 『쇼팡』의 이야기를 할때에자세히 쓰겟거니와 그는 일처다부주의(一妻多夫主義)자로 결혼의 근본원리를 배척하고 자유결혼의 새종교를 만들라고 열렬히 주창해오든 여자로 처음에는『쇼팡』한사람만으로 만족해지마는 그의 건강상태가 시원치못하게되자 그는『리스트』와『알프레드·드·뮷세』가튼 시인파도 친교를 매저오다가『리스트』가 완전히 자기의 소유물이 되지안흠것을 안다음에는 『또·뮷세』에게로 다러나버린여자입니다。

그시절에『리스트』는당시『뮤마』의종회(宗會)로 유명한『마ー그릿트』와 재미잇는 로ー맨쓰를 만드럿다고하고 또는『로ー라·몬테』와 사랑을 속삭이엇도 엿다고 하지마는 여기대해서는 별로 전해오는것이 업는것가트며 그보다는『올가·야니나』란『폴란드』의 숙녀가『리스트』를 몹시 숭배하야 그를 소종으로 섬기다가 밀경은 사랑의정열을 토하기 시작하야 독일、이태리、헝가리등 여러나라로 쪼처다니던 끄테 밀경은 『리스트』를 찔러죽이랴다가실패하고 다시독약을 먹이랴다가 역시성공하지 못하고 마럿다는 에피소ー드가 잇습니다마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省略)하기로하고 마지막으로『이든쎈슈타인』공작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것으로 이글을 끄티랴합니다。

◇

『이든쎈슈타인』공작부인이랍은『폴란드』의귀족『이바노브스키』공작의딸『카로리우네』입니다。그여자는 몸은[illegible]스럽고아름다웟지마는 한편으로는『쏘루·싼드』의 성격과 공통되는점도 적지안허서 사나운 말(馬)을 어거해서 달니기를 조아햇스며 또 독한 엽권연(葉卷煙)을 즐겨햇습니다。그여자의 어머니가 대단히 음악을 조아하야 한때는 『롯시니』의 제자가 되엿더만큼 그딸 되는『카로리우네』도 음악에 깁흔취미와 리해를 가젓스며도 총명한 재질의 소유자이엿습니다 그는 十七歲때에 『로시아』의 청년사관『위튼겐슈타인』공작에게출가햇는데 이공작은 미남자이기는 햇스나 극히 평범한인물로서 자기의 딸에게 흥미를가지는것외에는 가정에잇서서 아모런 취미나 행복을 느끼지안햇슴으로 공작파의 결혼은 그여자에게 엇서서 이미 불행의 원인이 되어잇섯든것입니다。

이러던차에 一八四七년에 『리스트』가『로시아』에 연주려행을 가게되고、거기서『위튼겐슈타인』공작부인을 알게되자 그여자는 비로소 자기의 리상적애인을 발견햇다는듯이 기뻐하야 그는 자기남편을 배반하고 황제폐하의 명령조차 무시하고서는『리스트』의 뒤를 쪼차서 『와이말』로 다러낫스니、그때 그의나이는 二十九세엿습니다。그는『리스트』가 요구햇든도 아니엿지마는 자기의 재산을 거우러서 그에게 제공햇고, 다음에는 자기의 몸까지도 바첫습니다。『리스트』의 연주는 사실상 그여자의 마음과 몸까지 로잡도록되얏、어루부터 四十년후에 그여자가 세상을 떠날때에、그의손에는 그가 처음으로 출석햇던『리스트』독주회의 푸로그람이 쥐어잇섯다고합니다。

『리스트』는『와이말』공가의국장의 지휘자로 작곡가로 교수로 또는작가로 그일홈을 천하에 떨치게되자일주이『페ー텐』와『쉐ー』에 의지하야 빗나던 이땅 다시『괴ー테』의 일홈에 의지하야 기억이 아직까지 새로운 이도시에서는 그가중심인물이 되엿스며 구라파각국의 우수한 예술가들은 끈님이시그의집을 자저오게되엿던것입니다。

詩形에 對한 管鏡
朝鮮詩壇과 新體詩整理問題 (三)
崔文鎭

그러나 現詩壇의 詩風을다면 [illegible] 無缺一化한 群雜的[illegible] 自意自主的 獨斷的 規範을 做設하야 詩라는 大義名分을 이저버리고 詩쓰는것을 一種 形色家의 某作亂으로 녁이다는것은 今後의 新體詩進展에잇서서 크게 考慮할問題이다。

×

新體詩가 朝鮮文壇에 登場한지는 不過二十年內外의 짧은 歷史밧게 가지지못하엿다 한글이 創始된지 四百餘年에 되여서도 作詩한다면 依然히 漢字로 詩를 지을지언정 한글로는 詩쓰기를 꺼릴뿐아니라 지을려고도 안헛다 그것은 漢字의 勢力이 當時의 朝鮮文化를 支配하여왓던것이며 한글로 쓰는것이라면 時調짓는데나 쓸줄을 알엇스며 詩에는 依例히 漢字로 記述치 안코는 詩로 看做하지 아니하던 까닭이다 그러나 泰西의 新思潮가 澎湃하게 東方文化에 一大革命이 이러낫스니 支那에서는 胡適氏가 在來의 文語體로 記述하여오든 文學을 口語體로 記述함이 妥當함을 主唱하여왓스며 江戶文壇에도 口語體文學이 漸漸勃興되여 漢詩의 文壇的勢力은 影子를감추는 同時에 詩를爲始하야 小說이나 戱曲이모다 [illegible]로 記述하기되어왓던것이다 朝鮮文壇[illegible]도 이것에 [illegible]치안흘수잇스랴 [illegible] 先 李人稙氏의 小說 雉岳山을 爲始하야 崔南善氏의 [illegible]고리와 靑春이라는 雜誌에는 新[illegible]이란 新體詩라할수업스나 비로소 現詩壇의 [illegible]이라할만한 新體詩가 처음으로 登場하게된것이다 漢詩와 新體詩의 詩形을 比較하여볼때에 漢詩는 第一于로 작ー버힌드시 잘 整頓되여잇는데 新體詩는 정돈된모양으로 美詩形이고루지못하다 그것은 漢詩는 文語體로 記述한 까닭이며 新體詩는 口語體로記述한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漢詩는 動詞가튼것도 글자 하나로 넉넉히 表現할수잇스나 新體詩의 [illegible]에는 그러치못하야 動詞하나를 表現함에잇서서 二三個乃至 四五個를가지지 안코는 表現할수 업슴으로 新體詩는 自然히 그詩句의行數가 길어질것은 不可避의 事實이것이다 그러나 이와가튼不可避의緣由로 因하야 新體詩의 詩形을 整理할수업다는것은 技巧가 不足한 詩人의 말이오語彙가貧乏한 詩人에게는 何等問題가되지안는다 [illegible]에 [illegible]한 素質을가진 詩人으로지점 動詞를 用치안는것이며 當不得己 動詞를 使用할 境遇에는 名詞에混用하여 그다지無理함이 업도록 表現하는것이다 口語體로 記述하는 新體詩가 文語體로 記述하는 漢詩보다詩形이 整齊되지못함이 上述한理由에서 大概[illegible]할수잇는 일이지만 그것으로[illegible] 그詩를 自由自在로 運用할수는 그詩人의 技巧問題며 其時自體의問題는 되지안는다 이와가티 發展途程에잇는 新體詩가 內容으로나 形式으로나 未完成品으로 볼수잇는것이니 嚴然한 意味에서 본다면 新體詩는 아즉도 詩로서의 領分을 가지지못햇다고 하여도 失言은 되지안흘것이다 二十餘年前 한글이 在來의 文語體로 記述하던 漢字의 勢力을 억누루고 口語體文學이 擡頭하던 其時代를 朝鮮詩의 萌芽期라하면 現在의新體詩時代를 朝鮮詩의 生長期로 볼수잇는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朝鮮詩가 將來 잘發育하야 長成되고 안되는것은 現詩壇을運用하고잇는 詩人諸氏의게 잇는것이니 發育期에處한 新體詩의 整理問題에 特別한 關心을 가지기를 再三忠言하는바이다

×

時代의 變遷으로 漢詩의 文壇的 意義가 漸漸 微弱하여저가고 몃千年동안 뿌리깁게 扶植되엿던 漢詩가 新體詩의게 自己의 地位를 讓與하리만큼 危機存亡의 岐路에선 漢詩이지만 그發育的 過程을 稽考하여본다면 複雜多端한 變遷과 許多한 難關을 突破하고서야 비로소 今日의 圓熟多甘한 結實을보게된것이다

漢詩
桐岡選考

黃海道海州郡壯谷面雙石里 姜鳳泳

紅葉 三等之二

葉葉紅酣一色新
晩山秋景勝於春
千家自在臙脂塢
萬壑皆成錦繡茵
雨露宿恩凋絲鬢
風霜幻刼啓丹脣
此翁醉面渾相似
驢背斜陽共爾親

詩情畵意 (二十五)
尹善道 詩 李楨 畵

간밤에 눈갠後에 景物이 달낫고야 어어라 어어라
압헤는 萬頃琉璃 뒤헤는 千疊玉山 지국총 어사와
仙界인가 佛界인가 人間이 아니로다。

漢詩漫話
漢詩의 牧歌的特徵 (四)
崔滄海

前段에서 대강 말한바와가티 漢詩卽古典漢詩는·그內容과形式이 함께 封建文化의産物로서 牧歌的特徵을固有하고잇다

그러면 대략절 牧歌的特徵은 果然 어떠한것인가? 勿論 例外가 업지아니치만 大槪 歷史的、[illegible]的으로보아서 漢詩의 意識卽內容은

1、尙古的 (非 展望的)
2、[illegible]的 (非 [illegible]的)
3、閑散的 (非 [illegible]的)
4、倫理的 (非 自由的)
5、宿命的 (非 理想的)
6、沈滯的 (非 活動的)

形式으로 보아서

1、字數卽音數가 너머 一定 齊整 또는 短促한것
2、平仄이 너머 單調한것
3、脚韻이 너머 嚴格한 同時에 節數가 너머 一定한것 (2와3은律 예限한것)
4、聲調가 너머 古雅、閑淡하고 單調一律的인것

以上에 內容과 形式을 各別해서 말하얏지만 實際에는 兩者가 不可分離的關係를갓고잇다。詩의 內容卽意趣는 形式卽聲格으로서 表現되는것이다 表現되단것보담 存立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詩의意趣는 理性과 論理의 産物인 論文이나 散文의意趣와는 따판이어서 그形式 卽韻律聲調에 依하야 그것이 決定되는 것이다 論文 散文의意趣는 自己表現인言語文字를 使役하는反面에 詩의意趣는 도로혀 自己表現인言語文字에게 使役되는內的秘密이 存在한것이다 同一한事物의 槪念을 가지고도 그것을 表現하는 感動의拍子 卽詠歎의소리의 尺度如何에 따라서 그槪念은 固定性을일어버리고 流動하는狀態를 우리의感動에 주는것이다 例하면 同一한月로서『月出於東山之下』의月은 冷靜한 紀事文의月인同時에 純粹한 物理的客觀의月이지만『月出東山之下』의月은 벌서 純精한客觀的月이아니고 우리의 情感의世界에 들어노려는 主觀的月이다 만일 이句를 더다시 주려서『月出東山下』라고하면 엇지될것인가? 이때은 情感的世界에 一步前進치안헛는가? 그럼으로 文에도 그러作用이 업는바는아니지마는 詩에잇서서는 더구나 意趣와 聲調와의 交互作用이 一層緊密하다 交互作用이라기보담 交互生産이며 交互創造이다。

詩人의觀念은 그象徵인文字에까지 發展된다。그러나文字의固有한性質에依하야 音聲的文字도잇고 象形的文字도잇스며 이文字의性質에依하야 詩의韻律的形式도 달려지지안흘수업다 즉리즘의 形도잇고 平仄의形도잇고 音數의形도잇다 또 韻律的形式의 節制한 組合에依한定型的 詩句도 韻律型 도韻律型이잇스니 이는리즘을 韻律的形式으로한것이고 平仄型 仄起型은 平仄을 韻律的形式으로한것이고 四言型 五言型 六言型 七言型 三五型 五七型 七五型 等은 音數에 依한韻律的形式이다 詩歌의節은 主的으로 韻律을 中心한『리즘』의 形式을 取한詩句의 重疊에 依한것인데 이詩句의 音數에 依하야 二節이라던가 三節이라던가 부르는것이고 이多數한節을 統合하기爲하야 聯이잇게된것이다 (詩의 形態學에 對하야는 다음의機會에 詳細히 말하려한다)

以上과 가티 文字의 韻律의 形式을 따라서 韻律的形式과 詩節、脚韻의 自然的特殊가 잇게된것은 漢詩의 形式도勿論 그文字의 自然的特殊性을 發揮해서는 올것한것이다 그러나 엇재던 지금 우리가 對象한漢詩는 그內容에 適應한形式이 結局은 牧歌的特徵을 벗지못하얏다는것이다 만일 그形式과內容이 互相適應性을일어서 그形式의 胎內에서 지금까지 活動해왓든 內容이 自己矛盾에 依하야 그形式과 서로衝突되는때에는 漢詩의 王國에서 一大敗革이 이러나지안할수업게된다 現今 中國新文學運動에依한 白話詩의 唱導는 卽이것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면아니될것이다

切取線

朝鮮日報讀者優待

此券 一枚에一個限 時計貴金屬 大割引券

此券을切取하야편지에封入해서申込하면代金引換으로發送함

東洋時計會社 ㊞

(番) 住所 氏名

左의堅牢正確無比한時計流行品을 當分初冬廉賣奉仕로서向後十日間內에申込하는분께 限하야左의헐가로投賣함
편지中에上揭한大割引券을 切取하야封入申込하면곳代金引換으로發送함
十日間內라도賣切되는때는 容赦해주십시요

(イ) 實用時計 機械スイス産 クローム側
(イの一番)(五十個限り) 丸實用型七石入アンクル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七圓の品を 大特賣中 三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二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支七石入十年保證付 當社定價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四圓五十錢に投賣す
(イの三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入十年間保證書付 當社定價十二圓の品を 大特賣中 五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四番)(三十個限り) 新樽型九型十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十四圓の品を 大特賣中 六圓五十錢に投賣す
(イの五番)(三十個限り) 新變型九型半十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六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六番) 五型婦人用(廿個限り) 白寶石裝飾付側十五石十五年保證 當社定價三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五圓に投賣す
(イの七番)(三十個限り) 角子變型八型十五石入十五年保證 當社定價二十二圓の品を 大特賣中 八圓五十錢に投賣す
(イの八番)(二十個限り)婦人用 最小變型彫刻付六型十五石入廿年保證當社定價二十五圓の品 大特賣中 十二圓に投賣す
(イの九番)(二十個限り) 最優秀モリス 九型十五石アンクル 四十年保證當社定價三十一圓を 大特賣中 十五圓に投賣す
(イの十番)(三十個限り) 最優秀機械九型半十石入廿五年保證書付 當社定價十八圓の品 大特賣中 七圓九十錢に投賣す
(イの十一番)(三十個限り) 夜光時計 十型十石アンクル廿五年保證書付 當社定價二十二圓の品 大特賣中 八圓七十錢に投賣す
(イの十二番)(三十個限り) 夜光時計丸變型九型半十五石入 三十年保證當社定價二十二圓を 大特賣中 九圓五十錢に投賣す

(ロ) 高級時計 機械スイス産 金側 八型婦人用 【金側은造幣局檢定證印付物品임】
(ロの一番)(三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金側保證)當社定價三十圓の品 大特賣中 十五圓に投賣す
(ロの二番)(三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金側保證)當社定價三十圓の品 大特賣中 十五圓に投賣す
(ロの三番)(三十個限り) 角子變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 (金側保證)當社定價三十五圓の品 大特賣中 十七圓に投賣す

(ハ) 高級時計 機械スイス産 側國産プラチナ側
(ハの一番)(三十個限り) 新變型十寶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付 九型半 當社定價二十圓の品を 大特賣中 九圓に投賣す
(ハの二番)(三十個限り) 新三昧型十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付 八型 當社定價廿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二圓に投賣す
(ハの三番)(三十個限り) 八型新長角型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 當社定價三十二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五圓に投賣す
(ハの四番)(三十個限り) 丸八型十五石入婦人用廿年保證 當社定價二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二圓に投賣す
(ハの五番)(三十個限り) 丸八型兼用十五石アンクル廿年保證付 當社定價二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二圓に投賣す
(ハの六番)(二十個限り) 丸八型自由鍊アンクル廿年保證當社定價二十八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三圓に投賣す

一般으로物價騰貴하는此時特히時計、指環、金、푸라치나等은現在 자꾸자꾸暴騰될듯이豫想됩니다 이러한때에 右의數量만大特賣를敢行하야平素의愛顧에報答코자하는바이올시다 편지로申込하시면곳代金引換으로發送順대로公平하게發送합니다、葉書로申込하시는분은大割引券은葉書의裏面에풀로부처서보내십시오

(ヘ) 不損ガラス入時計 精工舍特製 クローム側
此時計는 特殊製造의 깨지지안는 유리入인故로 좀처럼어리는것쯤으로는 破損지아니하는時計입니다
(への一番)(五十個限り) 丸十型七石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不損ガラス入當社定價十六圓の品 大特賣中 七圓五十錢に特賣す
(への二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不損ガラス入當社定價十六圓の品 大特賣中 七圓八十錢に投賣す
(への三番)(五十個限り) 丸九型七石入廿年保證書付 不損ガラス入當社定價十八圓の品 大特賣中 八圓五十錢に投賣す
(への四番)(三十個限り) 丸八型七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書付 不損ガラス入當社定價二十圓の品 大特賣中 九圓七十錢に投賣す
(への五番)(三十個限り) 丸變型八型七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書付 不損ガラス入當社定價二十圓の品 大特賣中 九圓八十錢に投賣す
(への六番)(三十個限り) 丸變型八型七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書付 不損ガラス入當社定價二十圓の品 大特賣中 九圓八十錢に投賣す

(ニ) 寶石入金指輪 金質은當社保證刻印付의物品임
(ニの一)廿個限 赤ルビー入金指輪 當社定價五圓の品 二圓五十錢に投賣す
(ニの二)廿個限 赤ルビー入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九十錢に投賣す
(ニの三)廿個限 靑サファヤ入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九十錢に投賣
(ニの四)廿個限 淡紫色アートマス入 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を 二圓九十錢に投賣
(ニの五)廿個限 眞珠入 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九十錢に投賣
(ニの六)廿個限 黑寶石(ヘマタイト) 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を 二圓九十錢に投賣
(ニの七)廿個限 黑寶石入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九十錢に投賣
(ニの八)十個限 ダイヤ入 金指輪 當社定價四十圓の品 二十二圓に投賣す

(ホ) ダイヤ入 プラチナ指輪
(ホの一)十個限 ダイヤ入プラチナ指輪 當社定價七十圓の品を 四十八圓に投賣す
(ホの二)十個限 ダイヤ入プラチナ指輪 當社定價五十五圓の品を 三十六圓に投賣す

指의寸法
指의寸法은 노끈으로 指의周圍를재여서 그寸法을편지에添付하야申込하시옵

(ト) 各國高級懷中時計
(トの一) クローム側十六型懷中時計鍍金鎖付 十七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書付當社定價[illegible]の品を大特賣中 四圓九十錢に投賣す(五十個限)
(トの二)(三十個限) クローム側 十六型薄型懷中時計瑞西最高級タバンシーマ七石入アンクル鍍方針付當社定價二十三圓を 十圓に投賣す
(トの三)廿個限 クローム側 十二型懷中時計米國最高級ウオルサム七石入アンクル卅年保證付 當社定價三十圓の品 十四圓に投賣す
(トの四)廿個限 クローム側 十二型懷中時計米國最高級ウオルサム七石入アンクル四十年保證付 當社定價三十八圓の品 十八圓に投賣す
(トの五)(二十個限) 十二型 ウオルサム 十五石入 六十年保證 クローム側 當社定價五十二圓の 二十五圓投賣 金側當社定價百二十圓を 七十五圓に投賣
(トの六) クローム側腕卷 (三十個限り) ウオルサム%型七石入卅年保證付 當社定價四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七圓に投賣す
(トの七) クローム側腕卷 (三十個限り) ウオルサム%型十五石 五十年保證書付當社定價五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二十五圓に投賣す

(チ) 男女兼用 八型 高級時計 機械スイス産 クローム側
(チの一番)(五十個限り) 丸型十五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二十二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一圓に投賣す
(チの二番)(五十個限り) 角子變型十五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付 當社定價二十八圓の品 大特賣中 十三圓に投賣す

(メ) 目覺時計
(メの一番) 當社定價二圓の品を 九十錢に投賣す
(メの二番) 當社定價三圓の品を 一圓三十錢に投賣す

東京市杉並區荻窪一丁目大通
東洋時計會社

代金引換이 실타시는분은 郵便局의爲替로 또는 書留로 送金하시면 [illegible]

當社로 오는路程
여기發表한物品은 臨時奉仕品의一部에 不過하거니와 其他各種貴金屬 모아노앗스니 지나실적에 한번들르시기를 바랍니다。省線荻窪驛에서 中野銀行前을지나 杉並區役所 荻窪警察署 南派出所에서 約一丁쯤가면 곳잇게됩니다。

電話荻窪 [illegible]番
振替東京 [illegible]番
東京取引銀行 住友銀行 第百銀行

趣味와 娛樂

좌프린과무어 마세가만타!
柊林戀愛氣象報

헐리우-드로맨스-界를披露하면 캬스팅·파날관은 엇제면하-바드夫人의 結婚할듯도하며 챠리챺프린의 趣味는포-레트·고다-드로부터 南海의 梧熱도로서-·무어 에게 轉向할것가트며 바지니아부루-스는 마침내 세상·로메로를 獨占하게되엿다

그리고 한동안 離婚說까지돌던 레이느바리모어와존바리모어夫妻는 最近에와서는 以前보다 친신 親密하게 지내게되엿다. 더욱 새로운 큐-피트의 襲擊을 마즈니는 아리스페이와 웽잉·모리스 그리고 퀸리-바리-와 존·홀 二組다 (寫眞은 좌프린)

라디오

十一日(土曜)

◇午後六時 慰問文朗讀과童謠 (全國中繼)
一、慰問文朗讀
京城女子師範附屬普通學校四年生 韓玉榮(女子)
京城師範附屬普通學校六年生 郭叡鼎(男子)
二、童謠 1、獨唱 고드름 2、同 뉴-스 3、同 눈
4、[illegible] 5、齊唱 꽃대지 [illegible]
伴奏 DK오-케스트라
編曲及指揮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冬季運動』(二) 金正淵
◇同七時四〇分 講演『輸入制限과家庭生活』 徐椿
◇同八時一〇分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春香歌中得石記 唱 李東伯 鼓手 丁元燮
◇同八時四〇分 一、京발님 二、山念佛 三、朴淵瀑布 白牧丹 鄭錦紅
◇同九時(東) 合唱 (第十一回競演合唱祭優勝三團體)(一) 男聲合唱 一、三月之夜 크로이처-作曲 二、村의시억시 저엘루프作曲 三、漁夫歌 짝-크스作曲 東京리-다-타펠페라인 指揮 秋山日出夫
(二) 女聲合唱 一、舞踊歌 왕손作曲 二、流浪의民 슈망作曲 E、O、콜럽 피아노伴奏 竹本萬津子 指揮 中井和子
(三) 混聲合唱 一、큰스트·데르-푸-게 信時潔作曲 二、五月之歌 멘데르스존-作曲 三、보시요아름다운것 成田爲三作曲 玉川學園混聲合唱團 指揮 岡本敏明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 土曜코-너-
◇同六時零時(城) 慰問文朗讀童謠
◇同六時二五分(城)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勇士夕
◇同九時(東) 合唱

十二日(日曜)

◇午後零時五〇分 名曲鑑賞 (레코-드演奏)
◇同六時 童話『젊은날의愛國者』 韓錫源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三〇分(臺北으로부터) 軍歌와歌謠曲 一、軍歌 가、臺灣軍歌 陸軍戶山學校軍樂隊作曲(吳成家) 나、臺灣國防歌 一條寅三郎作曲(愛) 二、歌謠曲 가、南風番 鄧雨賢 作曲(純) 나、摘茶花鼓 高金福作曲(純) 다、慰問수머니를 古關裕而作曲(齊唱) 吳成家 純愛 伴奏 臺北라듸오오-케스트라 同 臺北同志音樂會
◇同七時五〇分 歌曲 一、界面二數大葉 二、界面頭擧 三、弄 四、編 文明仙 崔蘭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二〇分 大笒獨奏 一、[illegible] 二、淸聲吹 杖鼓 朴鍾基
◇同八時三五分 一、小春香歌 二、執杖歌 三、달거리 韓成俊 崔英淳 金眞紅
◇同九時 提琴獨奏 一、協奏曲 A短調 삐발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라-르고 第三樂章 프레스토 二、푸로방스人의窓下樂 쿠-프랑作曲 三、쏘넷曲 드르들라作曲 四、스-베니르 드르들라作曲 洪蘭坡 피아노伴奏 金元福

第一放送
◇午後一時(城) 合唱
◇同一時二〇分(東) 船乘
◇同六時(城) 童謠
◇七時三〇分 軍歌(臺北)
◇同七時五〇分(大) 聯隊歌
◇同八時五分(東) 講談
◇同八時四〇分(同) 레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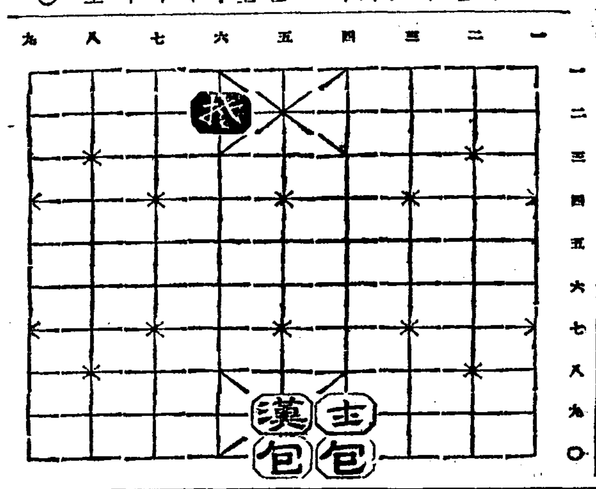
十三日(月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만두과〃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山念佛 二、긴아리랑 三、密陽歌 四、방아打鈴 五、梁山道 六、사발歌 [illegible]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衣服이야기』 梁孝任 [illegible]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雪中行進曲 二、[illegible]行進曲 三、童謠集(一) 四、舞蹈曲 片岡編曲 선비외사파 (二)시골아이(三) 새야새야(四)조각배 四、며가니-行進曲 고요-作曲 五、쁘로 雀英禎編曲 六、[illegible]스페-作曲 崔英植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 週間時報 時中會 李晶燮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 軍歌 景明合唱團 戰勝歌 指揮 朴景嬪
◇同七時四〇分 農村講座(一) 『有畜農業의經營』 金雄狂
◇同八時二五分(平) 獨唱 一、恒河의太陽 스카를랏티作曲 二、니-니의死 페르고레-지作曲 三、산타루치아 伊太利民謠 四、도라오라스렌토로 伊太利民謠 五、歌劇『리고렛토』中에서 이것도 저것도 베르디-作曲 六、歌劇『토스카』中에서 별도빗난다 푸치-니作曲 七、歌劇『마담·버더풀라이』中에서 離別 푸치-니作曲 尹斗善 피아노伴奏 石信哲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尺八
◇同六時(大) 이야기와劇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〇分(東) 箏曲
◇同八時一〇分 (舞臺劇)

漢이어기는수

漢이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 보십시오 (博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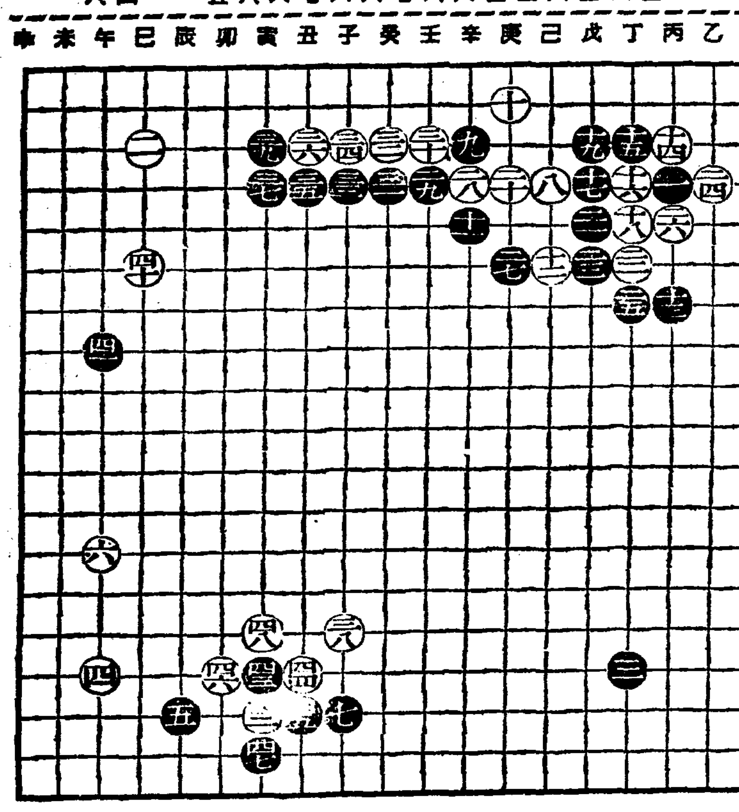
◇博譜大集 55 【問題】

黑의戰署變更은 賢者의千慮一失
黑의一目犧牲으로 中央勢力遂對等化

黑은 二十九로 壬의四로 白의陣頭를막고 白이 三十으로 壬의三으로 밀때 그것을 맛엇지 안코 三十一을 癸의四로 나가는것은 벌서 捨邊取中의 大計를定한것이라고 하엿지마는 그러니까 黑은 三十三을 또 子의四로 나가 無限하게緩慢한 長蛇陣을 질작정을하니 白은 三十四를 또子의 三으로 따라나가는데 黑은 그래도거륭을 먹으지안코 三十五를丑의四로나가니 白은 또三十六을 丑의三으로 따라나가는데 白이 俗談파가티 올면서 계자국먹기로 黑의行軍에 服從的追隨를 아니치못하는것은 東南邊의 自陣이 아직도 完生을못하엿슴으로 그것을 保護하려니까 이러한 忍辱도아니할수업는데 오늘날 이困辱의禍因을 따저보면 結局은 初盤의 庚의二한점에 넘우 迂拙하엿든때문이다。그러나 黑은 멋치長者隱核하드시 白을 城을치워 邊方의地을 根絕하려고 또 三十七을 寅의四로 나아갓는데 白이 못갓내 黑의 뒤만 따라서 나가다가는 自滅을하겟고 그러치안라고하드래도 黑東의 金城鐵壁가튼外勢를 當할수가업슴으로 언제는 손을빼여 멀리 三十八을 子의十五로 떠러서나가니 여긔의十五가 꼭 適地의 着手나 아니나는 別問題로 하고라도 인제는 白이 寅의 三에까지 壓하지안드래도 東南邊의 自陣에 黑이 侵入할수는업게쯤되엿스니 이때에 다른데로가서 自成一家해가지고 黑의厖烈한 勢力과 對時해보겟다는 意圖만은 適時之策이다。그런데 이때에 黑은 白에게 應手하지안코 三十九를 寅의三으로 내려섯다。古譜에도 賢者千慮에 必有一失이라는말이잇스니 그다지 深責할것은못된다고하드래도 黑의 이때까지의 籌備와 戰蹟으로 보면 전혀 大局的眼目으로 小利에 拘碍되지안는것이 疑然히 長者의 風이잇고 또한 그것으로 局勢를 牽制해서 中原을 叱咤하려는 氣槪가 凜凜하엇는데 그대로 나가면 黑은 三十九를當然히 己의五로 벌려 白의 南角에 雄據한 一陣도 中央으로 드러오지못하게하는 것이 得策일터인데 엇재서 거의 無意味에 가까운 寅의三으로 내려섯슬까? 그러나 白은 四○을 己의六으로 벌려 西角과의 連絡을 圖하는同時에 南角의 中央進路를 開拓하엿다 그러니 黑은우선 白의 連絡을 끈흐려고 四十一을 午의八로 드러가니 白은 먼저 着手한子의十五를懸點으로해서 四十二를黑陣中인寅의十七로 드러갓다。그러니 黑은 우선 四十三을 寅의十六으로 누르매 白은 다시 四十四를 丑의十六으로 다라오려하는지라 黑은 四十五를 丑의十七로 끈흐니 白은 四十六을 卯의十六으로 黑一目을 取하려하는데 黑은 이때 四十七을 寅의十八로 바추어 一目을犧牲하니 白은 無難하게 四十八을 寅의十五로가 黑一目을 取하엿다。黑이初戰以來에 敗勢에 努力해서 東角에서 시작한陣形이 長驅大驅로 南進하면서 中原拔勢가 壯觀을 이루엇스니 비록 白에게西角을 다베혀주드래도 四三 寅의十六을 犧牲치말고 사러나왓드들 中原制覇가 完全히 確保되여大勢를定할것인데 目前의 小利때문에 寅의 十六을 犧牲식히고보니 黑白의 中央勢力이 對等해지며 黑의 東南邊勢力과 白의 西北邊勢力이 相殺되는同時에 黑은 前功可惜이 되엿다。(赤松子顯識記)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3)=
白 任佑植
黑 丁奎春

●三三 子의四
○三四 子의三
●三五 丑의四
○三六 丑의三
●三七 寅의四
○三八 子의十五
●三九 寅의三
○四○ 己의六
●四一 午의八
○四二 寅의十七
●四三 寅의十六
○四四 丑의十六
●四五 丑의十七
○四六 卯의十六
●四七 寅의十八
○四八 寅의十五
死點 ●一 丙의四 ● 寅의十六



=長篇小說= 花冠 【123】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아득한봄 (七)

『참 모새 꿉지오?』
『꿉습니다…그래 실사회에 나오신, 감상이 어떠십니까?』
하고 어철이가 먼저 거름을 멈친다。
『아직 모르겟서요 그저 어떨떨하기만 해요』
『학교일이 재민 계십니까?』
『아이들은 재미잇서요 저 워낙 아이들이 조왓스니까요』
『학교는요?』
『글세요 아직 확실한 인식이라구 허긴 어려워두요 우리 다닐때 소학교와 전혀 딴판이야요』
『어떠케요?』
『사람인데두 그다지 왜 판료화햇슬가요? 참말 뜻밧기어요』
『으레 그러케 됏슬거지오 우리들의 정렬 그대로는 인젠……』
『……』
『전 어번에…여기 좀 옛슬가요?』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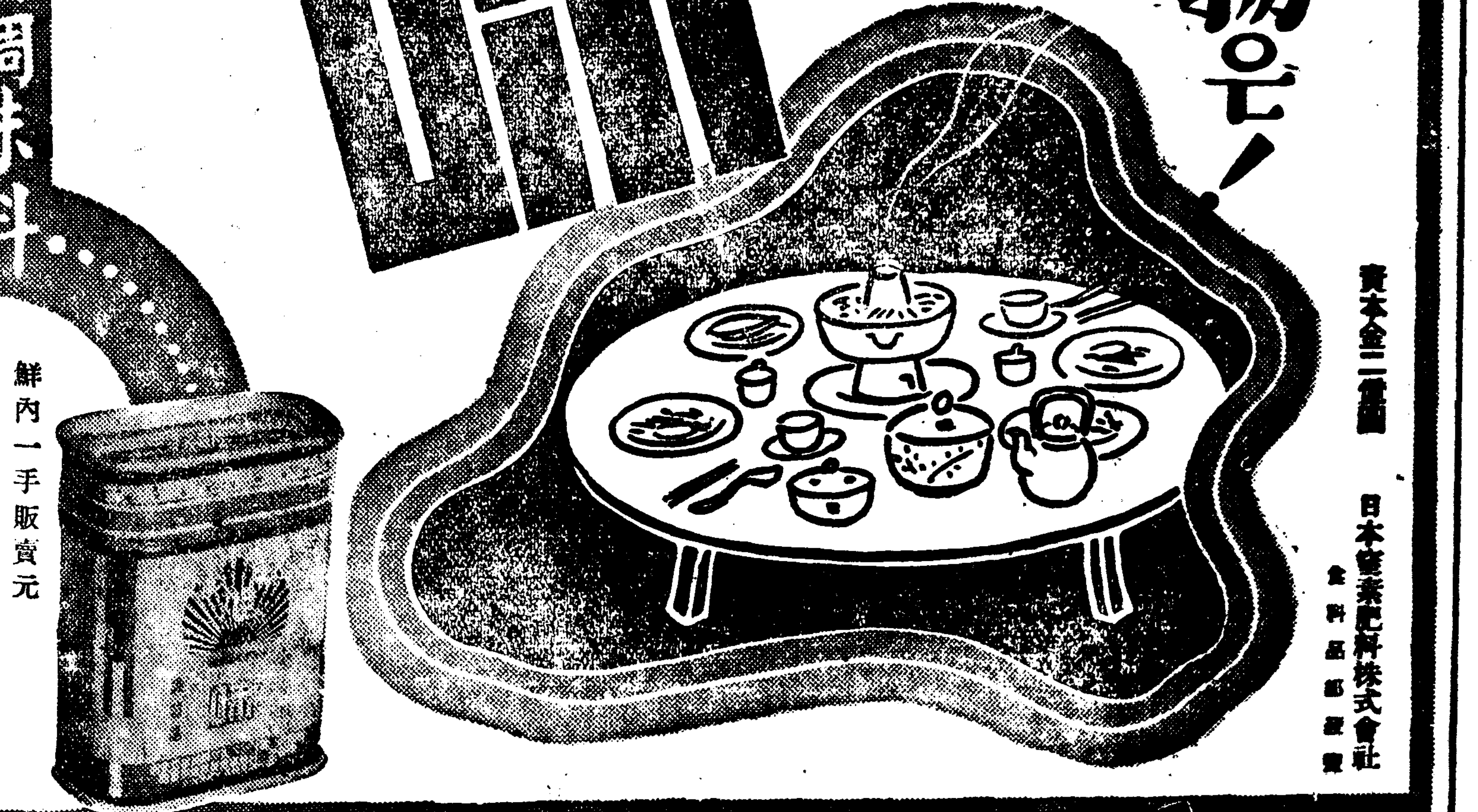
두사람은 가지런히 모새우에 안젓다。
『옷키운일루 드러가긴 햇지만 오래두구 제 생각을 정리할 조흔 기회는 됏섯세요』
『작년 송전서 뵈때보다 퍽 버판허시는것 가터요?』
『그러십니까?』
『각방면으루 몽꽤됏슬거라구 언제 그러셋죠?』
『인석어 그러케 되니까 모든 방법이 냉정해질건 사실이겟지오 그러나 얼른 비판이라 보시는덴 좀 끈란하군요』
하고 이철은 웃는다。
『그럼 비판이 아니라 좀 냉정해 지셧습니다』
하고 동옥도 우섯다。
『전 참 냉정해졋습니다 전 어번 그안에서 두가지 크게깨다른게 잇습니다』
『뭔데요?』
『첫젠 내가 무죄한것에 드러가 봐 나가면 무슨일을 할가? 생각하건데……』
『네』
『가만히 생각하니 맥해전과도 달리 정렬만으룬 아무능률이 업술뿐 아니라 대까업는 허생만이거쉬운걸 알엇습니다』
『……』
『전 하생서대 서랙과목으로둑 일어도 좀 배보고 불란서말도 좀 배왓습니다 그래 어번에 그안에서 독일어책하구 불어책을 차입시켜달래서 번갈아 좀 읽어보다가 우연히 우리말과 그말들을 비교해보게됏습니다』
『네』
『독일언 자음어(子音語)가 만습니다 그래 듯기 여간 거세지 안습니까 여자가 하는걸 드르면 넘우 보드랍지 못허죠 남자들이 말다툼하거나 호령할 이조 불란서말은 그와정반대로 들지꺼리는거두 여간 감사스럽지안허요 그런데 우리말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음어 자음어가 번번정도겟서요 에상쥐이야요 발음한 그러게들 좋은게아니래요』
『숭보지 마세요』
『웬데요?』
『그안에 벨벨사람들과 다가치 잇스니까 옷에 몰지여 떠낫지 안습니다 밤낫 서울거리구 근저리구 정그러구 가려구 그럿습니다 허허…』
『네…』
『그런데 그런 쾌부의 경축을 떨하는데 얼마나 그 옹항부러 서울서울어니 근칠근질이 더 적당한 어감입니까? 말의 선경이 얼마나 송직합니까? 그래 흥미가 생겨 가만히생각하니 특히 감각에잇서 여간 발달된 말이아니야요 들어보세요 달다두어딋 달다뿐입니까? 달크므래 달작지근 모두 다르조? 보는걸루두 붉다하면 붉다뿐입니까? 빨거타 빨가타 붉으스름 불그스럼 발그레 볼그레 보리끼레 얼마나 세밀합니까? 또 자연음향을 얼마나 그대루 낼수가 잇습니까? 물소리라던지 기적소리라던지…웃지마세요 옛날이야기에 뭐젖신업는사위가 처가집에 갓는데 뭐뭐해가지구 왁나니까 어른을 죄 이저버리구 술을 오줌살에다 쨍울 꺽꺽푸드데기라 히떡을 하야반대기라 이자떡을 느러옥치래기라 햇다는것가튼것、모두 의음의래(擬音擬態)가 자유스러운 말이 아니곤 도저히볼 가능한 표현입니다』
『저두 우리말처럼 감각표현에 자유스런 말이 업는줄은 학교서 돌엿서요』
『그런데 문화이란 뭐입니까 대부분이 감정묘사 아닙니까? 감정묘사 용어루 이러케 훌륭한 말이 업슬줄 압니다 이런 문화용어로 세계일류의시말을 갓구 왜 조선문인들은 세계적 걸작을 내지 못하는나? 어번에 전 나오는길로 그걸 좀 알아봣습니다』
『아니、문화으루 전향어세요?』
『아닙니다 그건 문화어상의 시큰이유가 엿습니다』

專賣特許 保險證付品
和信萬年筆
和信本支店·各地連鎖店販賣

醫學士 趙永植
內科 花柳病科 新陽醫院
平壤府新陽里 電二五七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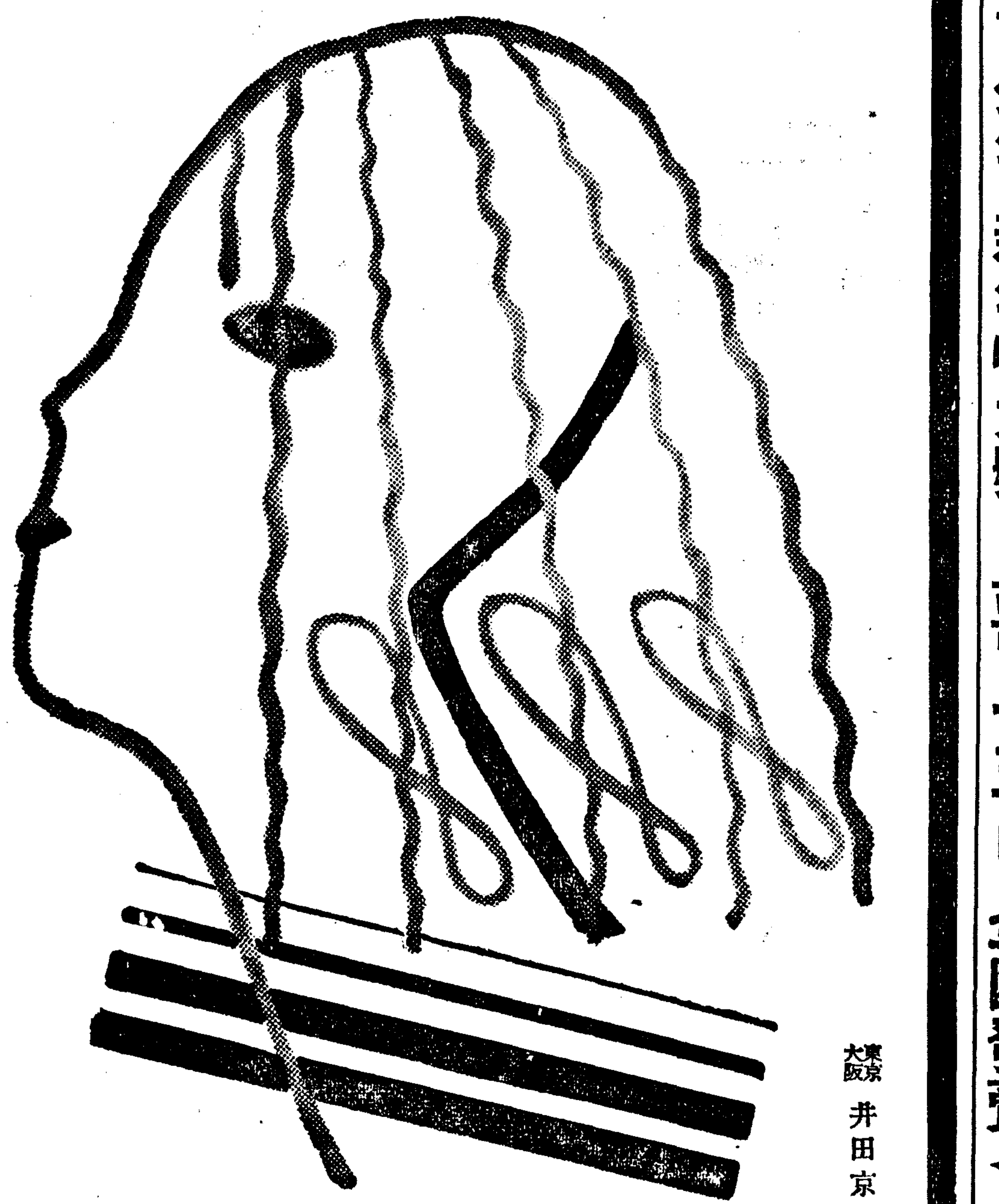
(短小早漏에百發百中) 性器强大藥
(淸導補腎丸)

商報進呈
安東縣四番通九丁目三、旭橋 局十六號振替京城一二三〇三八番
滿蒙特產物商會

旭
朝窒會社數億円의巨資에서生産되는新時代의最新調味料
純結晶調味料 旭味


天下의飲食物은!
旭味少量을치므로서 맛나게됩니다
科學的見地로保證된 最高의品質! 最廉의價格!
朝鮮窒素二億의巨費와最高技術의結晶으로된生産品
有名百貨店·食料品店·藥店에잇슴
鮮內一手販賣元 窒素肥料販賣株式會社 京城·釜山·平壤·群山·淸津
資本金二億圓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食料品部發賣

★百頁十錢의〃少年〃新年特大號 오는十五日 全國發賣★

簡單히 빠르게
銃後의 黑髮
메누마로깨끗하게 守護하십시오
레몬精油配調·純植物性
メヌマポマード (메누마포-도)

머리감기前에
웨어브하기前에
카-르할때
東京大阪 井田京榮堂

中部版

臨津江上流를遮斷 水電發電을計畫

遞信局에서實地調査에着手

躍進途上伊川에朗報

[伊川] 강원도이천군은 강원도에서 제일북쪽 한모퉁이로서 모든문화에 뒤지고 군내가 전반적으로 험준한 산속에서 다만 림진강(臨津江)이 발원되야 군내를 흐르고잇는바 모든문화의 혜택을 입지못하고잇던 이천군은 근년에 이르러 비약적진전을하고잇는데 북부중앙선이 소화십오년이면 완성을 볼터인중 다시금번 이천읍내에서 약팔키로의지점인 이천면개상리(伊川面開上里)에서 림진강 상류를 막아서 수력전기를 발전하야 현재사회문제중 중대한 연료(燃料)문제의 해결책이 전기화(電氣化)의 목표로 체신국전기과(遞信局電氣課)에서 평야기수(平野技手)일행이 이천에도착하야 개상리 림진강상류에서 지질을조사중인바 당국자로는 절대비밀에 부치고잇스나 모처로탐문한바에 의하면 금번체신국에서 강원도회천(華川)과 이천(伊川)두곳에 지질실지 조사반이 출장하야 수력전기의 발전지를 조사중인바 이천군의 수력전기발전문제는 결정된사실로 위치상으로나 수량으로보와 전조선중에서 이천과가튼곳이 업다는데 지질조사만도 약삼개월이 걸닐것으로 공사기간은 삼년간이나 걸니리라고 하는데 실로 발전도정에잇는 이천군의 명랑한희소식이라고한다

正租受檢激增 十二萬石突破

[金浦] 김포곡물검사소(穀物檢査所)의 금년도에정조(正租)검사석수를 조사한바에 의하면시월 십일일로 두달동안에 검사원 네사람의 활동으로 검사한총수 [illegible] 달하엿다는데 작년동기에 비하면 이만오천석에 오십여석에약 오배나되는 엄청난 수자를보게 되엿다한다 그리고 아프로도수검할정조가 이만여석이상은 잇슬것으로추산된다하니 금년풍작은 다시보기어려운대풍작이라고한다

仁川竊盜事件

[illegible] 의외로사고가적어서 단속이엄중하얏은관계로 사고가감소되얏다는바 이제인천경찰서관내의 절도건수만으로 칠월이후의 전년비교는 다음과갓다한다

	十一年度	十二年度
七月	一四五件	一六件
八月	一〇五件	一一件
九月	一〇四件	九八件
十月	一七四件	八九件
十一月	七九件	六五件

仁川傳染病減

[仁川] 건강인천에이상업다는것 파가리 디생원이뷔이엿슴때가잇섯다는이천으로서도 파거십일개월간에 전염병환자가 일백사십구명에달하얏다는데 이는 역시 전년에비하야 약이할의감소를보여주고잇다는데 자세한수짜는다음과갓다한다

腸窒扶斯 一七名 赤痢 九〇名 發疹窒扶斯 一二名 지푸테리아 二六名 腦脊髓膜炎 二名

開城의同情週間

오는二十日부터實施

[開城] 개성은 부도(府都)라하나 그리면을 조사해보면 세궁민에 속한 호수가 이천호나되며 여기딸린 인구가 구천명이나된다하다 이들은 수반도장(粟飯工場)에 겨우그날그날을 연명하는 극빈자로 도라오는 설명절에는 이들에게도 따스한"떡국"한그릇이나마 가티 나노아먹자는 온정주의에서 금번개성부에서는 특히 방면위원회(方面委員會)를 조직하야 가지고 각방면사무소위원의 총동원은 물론 정총대서기와 부당국 사회사업계원의 응원으로 오는 이십일부터 일주일간을 세말동정주간으로 정하고 선전삐라를 배부하야 일반에게 상호부조의 정신을 철저히 고취시키는일방 호별방문(戶別訪問)도 실시하야 일천수백원의 동정금을 모집해서 구제미와 구제금을 동정키로 되엿는데 금년은 이세말동정도 [illegible]

水原市內빼스 行人에흙洗禮

[水原] 수원은 갓득이나 길이 좁아서 비가오든지 눈이녹이면 길이질때에는 통행인이 불소한 곤난을 늣기는데 그일은 수원 시내뻐스는 방진기(防塵器)를 달지안코 질주하야 통행인의복을 더럽힐뿐아니라 로변좌우 상점에까지 적지안흔 곤난을 준다고 불평이자자한이때 지난구일은 비가오는데 시전(柴田)씨가 입영(入營)하러 출발하는 날임으로 만은사람이 수원역까지 전송하러 나가다가 시내뻐스는 방진기를 안이달고 시내를 질주하야 통행인의복을 더럽히여 주엇슴으로 전기시전씨를 전송하러나가든 사람중에는 도로집으로도러간 사람도적지 안타고 말하면서 당국에서 좀엄중하게 주체하야주기를바란다고한다

楊州市日도陽曆으로

[楊州] 양주군내 시장개시일을 오는일일부터 일제히양력으로 실시하기로되여 공포하얏는데 날짜는 종전대로 그대로 승용하게되엿다한다

제를실시하자 [illegible] 하는 봉양배의출몰이 가장우려되

男便의遺志밧드러 大金萬圓을喜捨

江華故金容煥氏의未亡人 黃善弼女史의壯擧

[江華] 강화군길상면 온수리(江華郡吉祥面溫水里)에 사는김용환(金容煥)군은 이십사세라는 꼿다운청춘을 일기로줄엇든것을 비롯하야보기도전에 요절하고 말엇든바 그는일상생활에잇서서 나어린 지사로써 간단업는 사회사업을 하야 그의 끼친바 공덕도 만엇섯다 그가 저세상 사람이 되자 그의 유언을 마튼 미망인 황선필(黃善弼)녀사는 가족회의를 개최하고 고인의유지(遺志)를잇고자하야 일만원을 사회사업에 쓰기로결정하고 지난십일 이를발표하고 동시에 동가족회대표 김영선(金永善)김영준(金永俊)량씨는 관계당국을려방하고 이뜻을전달하는동시에 이사업이 뜻잇게 매저지기를바라며 일반의칭송은한가지로 황녀사와 및 그가족회제씨에게 드리고잇다한다

金永善氏談

별항보도한바 고김용환씨의 유지를 밧드러 미망인 황선필녀사가 금만원을 사회에희사함에 이뜻을전코자 가족회대표가 지난십일 본보강화지국을 래방한 김영선씨는다음과가티말을전하얏다

"김군이 생전에 그리큰사업은 한것이업스나 끈임업는동정과 뜻을베푸러오던바 이십사세라는 꼿다운 청춘을 일기로고인이되엿에 미망인과 더부러 우리는 그의생전 유업의 한쪽박이나마 사회에 남기고자 적은돈이나마 일금만원을 희사하는것이 적다마시고 써주기를바란다

하며대게다음과가티각방면에 배당기부하기로 결정되엿다한다

一金千五百圓 江華普校 一金千圓 江華郡聯合青年團 一金四千圓 溫水幼稚園 一金千圓 溫水南宮公會 一金八百圓 江華幼稚園 一金五百圓 吉祥公普校 一金[illegible]圓 同運動場 一金二百圓 江華合一普校 一金二百圓 溫水消防組 一金三百圓 吉祥面學務 (以上寄附額에寄附키로決定)

(寫眞上은 故金容煥氏와 下는 未亡人黃善弼女史)

時局認識深刻 仁川犯罪減少

[仁川] 일지사변이후에 동회관 [illegible]

오케ー演奏會 八日、開城座에서

[開城] 경성오케ー레코드회사주최와 본보개성지국후원미테 개최된 "오케ー대연주회"는 지난팔일부터 개성좌(開城座)에서 상연된바 지난팔일밤은 특히본보독자위안의 밤으로 우대케되엿든동 일즉부터 이대중의의유성을 그리워한지오랜만도"관"들은 정각전부터 조수밀듯 몰려드러 장내는 삽시간에 입추의 여지가업시 대만원을 일우웟다 그래서내중에는 할수업시 입장까지 사절케되엿다 이가티 청중을본대인기속에 CMC째쓰밴드의 명랑한서곡을필두로 이십여명 남녀명가수들의 주옥가튼 노래가랑기처럼 장내를 서련하야 청중을 무한히 매혹한바 그야말로 음악전당에 꼿가튼도취경을 이루웟다가 노래가 꼿나면 꼿속에서깨듯ー재청 또 [illegible]와 김광자(金綾子)양의 롤롱미잇는"만스"는 일단색다른 정취를 이끄러개성종유의 인기속에 이연주의밤을 꾸미으니 때는열한시경이다

小作人子弟爲하야 簡易學校를創設

富川郡蘇萊面에土地를가진 京城高圭成女史特志

[蘇萊] 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에 삼백석추수하는농장을두고 경성부죽첨정삼정목(京城府竹添町三丁目)에 거주하는 고완근(高完根)의 조모고규성(高圭成)여사는 천성이 온후하야빈민구제를 힘한다하며 일반소작인에게도 이후하게 할뿐아니라 매사를 공평처리하는 지주로 찬성이돕다는데 상세한내용을 듯건대 금번도에 새로 자기친족되는 고원준(高源濬)씨를 농감으로 지정하야 토지 소재지로 소래면도창리(道倉里)에 창고를 짓고 일반소작인을 감독케한다는데 소작인칠십여명에 생활상태를조사하야 근검저축과 부업장려를 권유하며 때때로농사개량에대한 강화를하야 일반소작인들을 감격케한다는데 동리강 창북라 이상화가 농조생활이 라 가계가곤란한상태로 각종세금에 체납이잇서서 이를유감으로생각한 동여사는 소작인들에게 납세를 하기위하야 명년도부터자기소유로 삼천평을 공동경작을하도록 하엿다하며 또 그외에 소래경찰관주재소(蘇萊駐在所)순사사택개축에 금백원을 기부하엿다하며 소래면에 입학기근으로 수백명학령아동들이 도로에방황하야 문맹을 면치못하게됨을본 동여사는 도창리에 간이학교라도 설치하야 배움에주린 학령아동을 수용하고저 활동중이라는데 일반은동여사의 특지에 감사함을마지안는다고한다

開豊郡慰問袋 七百三十餘點

[開城] 개풍군군사후원련맹(開豊軍事後援聯盟)에서는 황군출동에대한 위문대(慰問袋)를 모집해서 총후관민의 열정을 다하얏든바 지난십일까지 접수된분만이 칠백삼십여대의 다수에달햇다고한다

地方人事

▲金永善氏(金容煥家族會代表)十日本報江華支局來訪

▲李長元氏(每申開城支局長)新任人事次本報開城支局來訪

本報讀者慰安音樂映畫大會

第四日

今夜午後六時半 本社講堂에서

招待券은 招待日을 配定하야 其前日에 進呈함

主催 朝鮮日報社

長篇小說

林巨正【一】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송악산(一)

송악산은 송도의 진산(鎭山)이요 국내의 서악(西岳)이니 산신송악대왕이 령검하기로 유명하얏다.

태조개국후이년 도읍을 한양으로옴기기전에 팔도성황(城隍)을 봉하는데 송악산성황은진국공(鎭國公)을 봉하고 화령(和寧)지금함흥(咸興) 안변(安邊) 완산(完山)지금전주(全州)성황은 계국백(啓國伯)을봉하고 금성산(錦城山羅州) 계룡산(雞龍山公州) 감악(紺岳積城) 백악(白岳漢陽)삼각산(三角山漢陽)성황과 진주(晋州)성황은 호국백(護國伯)을봉하고 그외의 성황들은 물론어호국지신(護國之神)이란 칭호를 주엇다. 이로써 송악산 성황은팔도성황중에 지위가 가장노파젓다.

성황당 산신이 일흠은 달으되 나라에서봉한 진국공과 민간에서 원것은 송악대왕이 실상한귀신이건만 진국공위패를 밧드는 성황당과 송악대왕 목상(木像)을 뫼신대왕당이 각각따로잇고 그외에 조흔곳귀신들을 위하는국사당(國師堂)고녀당(姑女堂)부녀당(府女堂)이잇서서 송악산우에는 신당이자그마치 다섯이나 되엿다. 다섯신당에 매달려사는 무당과박수들은 서울반면이만하게 재상가(宰相家)와 궁가(宮家)는 고사하고 대궐안에까지 셋줄이닷는까닭에 류수부(留守府)관속들이 함부로손쓸 생각을 먹지못하얏다. 대왕대비나 왕대비의몸을바른 나인들이 치성이나 귀도하러나려와 잇슬때는 류수사도도 곡진히대접을하지못하니 그아래관속들은 더말할것이업섯다. 궁중으로부터 여염간(閭閻間)에까지 송악산풍의하는것이 성풍하든시절이라 다섯신당의굿장구소리가 사시사철 끈치지아니하는중에 봄가을보다 여름겨울이 더심하고 여름에는 오월굿이 가장만코 오월에는 단오날굿이 제일 굉장하엿다. 단오날은 다섯신당에서 일제히 큰굿을 차릴뿐아니라 대왕부인이 그네를뛰다시고 대왕당의목상을 들어내다가 그네뛰는시늉을시키엇다. 대왕부인이란 대체무엇인가 어느때에 무당이 대왕의신이나렷다하고 홀아비로지내기가 적적하니 부인을 만들어달라고 말하야 대왕부인의목상을 해안치게되엿는데 이것을 대왕부인이라고 일컷게되엿다. 그네뛰는것은 사내녀네가 다가치하는노릇이라 대왕부인이 그네를뛴다고 말하지마는 대왕부인의목상만 그네를뛰게할뿐아니라 대왕의목상도 그네를뛰게하고 더구나 대왕과 대왕부인의 두목상을한께 쌍그네도뛰게하얏다. 목상이란 나무토막이니 나무토막이 그네뛰지뭐냐 목상을 그네에 올려세우고 멜빵으로 잡아매고 무당과박수가 뒤에서 흔들어먹이는 것이니 송악대왕이 령검한 귀신이라면 무당과 박수에게 벌역을 나릴듯한 설만한장난이다. 대왕인과 대왕이 쌍그네뛰고난뒤에 그그네우에 한번올라만서도 불생자(生子)하고 또 다병한사람무병장수한다고 무당박수의말을 고지곳대로밋는 어리석은 남녀들은 그네맨 동구나무아래 백채일치듯 모히어서 그네참례하랴고 서로떠다밀다가 다처서병신되는사람까지 생길때가잇섯다. 단오날 부중에 편싸움이잇고 씨름판이잇서서 구경꾼이 더러갈리지마는 대왕당그네뛰고 큰굿구경하고 또 사람구경하랴고부중에서 쏘다저나오고 촌에서밥싸가지고들이오고 원지에서 노지씨가며 전위해와서 송악산이 사람산으로변하도록 사람이 들끌엇다. 남녀가 뒤석거서 부비대기지는판에 남잡한일이생기는건 몇이제가 업섯지만 그래도일녀전이 엣날로 해마다점점더심하야 서론군이 마진 젊은것들이으숙한곳을 차자다니는것도 혀석만하지고 삼삼오오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일찌패가 처녀와유부녀를 우려으로 욕보이는일도 조종생기어서 례법을아는 선비넘네는 눈살을찌프리고 말세다 되엇슬 탄식들하얏다.

이해에 나이열둘된 왕세자(王世子)를 관례시키게되어서 세자빈(世子嬪)을 간택(揀擇)하얏는데 대왕대비는 귀중한손주님과 손주며느님을 위하야 오월보름전 중궁(中宮)에 송악산에 큰치성을드리기로 작정하고 미리부터 분부를 나리엿섯다. 사월보름께 나인두엇이 먼저나려와서 송악산 신당들을 봉심하고 사월그믐께 대왕대비의 신임을밧는 늙은상궁(尙宮)이 무수리 각심 별배 구종을 다솔을거느리고 미곡 과품 푸꾼궁속 분불을흑거하고 단주무녀에게 나려와서 모든 준비를 정성껏차리엇다.

송악산에서 나라호인의 여람굿을한다고 송도부근사람들은 단오나서 경향각처에서 전에구경가든사람까지 구경을가라고 별르게 되엇는데 송도부근사람들은 단오날이되기를 손꼽아기다리고 타군사람들은 오뉴월에겹이면 별서송도로 모여들기시작하얏다.

1937年最新型スケート靴

ロングスケート 自四圓 至八圓

洋靴及スケート靴都散賣

各種毛皮ナメシ加工料金

型錄進呈

平安ヒコーキ印スケート靴 A、四圓也 B、三圓五十錢也

平安製革社

OKS

實用新案 No. 129299 專賣特許 No. 99982

類似品ニ御注意

絶對他ノ追從ヲ不許

全國代理店ニテ御買求メ乞フ

レープー製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平和堂 一劑十円 京城堅志洞

口腔外科・齒科一般

朴扶榮齒科

京城鍾路一丁目電車停留場前 (漢陽タクシー二層)

急告

연주창

淸化丸

朝報案內

外務社員 販賣所主任 採用

他品의三倍나되는

亀の子束子

出征가신 夫君의 健康하신風采, 생각하시면 집에잇서 물일가든건 주물것업스리라, 손구락이어려도

東京 西尾商店

山口樂器店鍾路支店

빅타ー ビクター ポリドール 포리도ー루 蓄音器

콜럼비아 コロムビア 蓄音器

帝蓄 テイチク

在庫豐富

京城府鍾路二丁目

生殖器는男子의急所

보라! 自手診斷法書無代進呈

軍手의製造

◎年中無休……收入確實◎

朝日軍手京城支店

平壤府水玉里(電話一〇六九番)

水玉産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ヨイアカリ メヲマモル

밝은등불은 눈을직힌다

全國小學校兒童圖畫作品募集

期間 昭和十二年一月一日부터昭和十三年一月末日까지

課題 圖畫「등불에關한것」

條件 一、圖畫用紙四切(三八糎×二九糎)에 구레욘、구레파스、파스텔 또는水彩로그릴것

二、應募畫用紙의 裏面에學校名、學校所在地 學年別 姓名을 詳細記入하십시요、個人의住所는 記入치마십시요

締切 昭和十三年一月末日到着으로써締切합니다

送先 神奈川縣川崎市東京電氣株式會社照明學校宛

審査員 東京高等師範學校教授 板倉賛治先生 東京女子高等師範學校教諭 山形寛先生 青山師範學校教諭 赤津隆助先生

賞品 第一等賞 本棚 一個(各學年別一名) 計 一六名 第二等賞 水彩繪具 一式(三〇名) 計 一六〇名 第三等賞 クレパス、畫帖 一揃(五〇名) 計 四〇〇名 佳作 紙挾み 一個(五〇〇名) 計 八、〇〇〇名

發表 昭和十三年三月上旬 新聞紙上에 一、二等當選者를發表 第三等以下는直接通知합니다

學校에 記念品贈呈 一等受賞者決定된學校에對해서는記念品으로서 라듸오兼用電氣蓄音器 一臺를贈呈합니다

マツダ ランプ 眞空管 製造元 東京電氣株式會社

祝 首都南京陷落의

祝盃는 白鶴으로

登錄商標 清酒 白鶴

嘉納名會社

三仙膏

크고 적은 腫氣에 手術로도 百藥으로도 完治가 안되시거든 三仙膏를 꼭써보십시요

一三仙膏効力의實證一

延專教授 鄭寅普先生夫人 乳腫

同 丁來吉先生 髮際、背腫

朴承稷先生令孃 朴英慶女史 關節炎

天道敎中央宗理院 全義賛先生 項腫

前判事 徐相助先生 濕腫

東萊高普校教諭 李根培先生 腦后腫

以下略 (無順)

定價 一貼 金二十錢 一貼半 金四十錢

京城 製造本舖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〇五四 振替京城二〇〇二

朝光送年號殘部僅少至急히注文하시요

戰時經濟行進譜 統制强化의 一年 (九)

公債

逐年膨脹되고 不均衡되어가는 財政때문에 財界의 彈力性이 漸次喪失되어가는 傾向인것이로되 前年度까지는 그래도 多少餘裕가 잇섯다. 軍事費의 膨脹은 不況時代에는 遊休設備를 運轉함에 依하야 消化되엇고 國債消化도 從來와가티 日銀引受法으로 彈力的資金의 流出을 놀느기만하면 特히 非常手段을 講究치안어도 維持할수잇섯다. 그리하야 國債消化도 比較的順調로되어 日銀所持公債의 賣却하는일이 업섯다.

그러데 二·二六事件發生後 內外政治情勢急展開에 依하야 軍事費의 飛躍的再膨脹과 滿洲國의 滿行的經濟開發이 要請되고 그 實施의 影響이 本年에 드러나 漸次大衆面化되어 財界로는 超前에 잇서서의 從來自由主義經濟가 統制經濟로 變해지고 所謂經濟의 準戰時體制로의 編成을 하게되엇것이다.

以上과가튼 財界의 一般的情勢下에 本年度의 金融界는 統制化의 一途를 밟게되고 이에 伴하야 日銀、興銀兩銀行의 業界에 對한 指導力이 顯著한 强化를 보힌것은 前回에 旣述한바인데 本年의 金融界를 特徵잇게한것은 結城、池田의 「콤비」에 依하야 開始된 非常時經濟對策인 生産力擴充政策의 過程이엇다. ×

生産力擴充政策은 物價對策으로서는 자못矛盾이 만흔 方策이엇다. 即 財政膨脹에 依하야 物의 需要가 激增되는데 對하야 産業의 生産力은 어미遊休設備活用의 限度를 넘어 設備의 改良新設이 어닌는 이 需要增加에 相應한 供給을 行할수업는 結果 物의 需給關係로 物價暴騰을 招來할念慮가 잇섯슴으로 生産力擴充에 依하야 이러한方面으로부터 招來되는 物價高騰을 防止코저함이 目的이엇는데 過渡的으로는 이 生産力擴充에 要하는 物資需要가 本來의 需要에 加하야 需給不均衡에 一層拍車하게되엇다.

本年은 正히 그 過渡期의 第一年이엇다 從하야 金融界의 實情도 過渡的變態的樣相을 明瞭하게 示現하얏스니 即 低金利政策은 公債消化의 必要上 絶對不動의 金融政策이엇고 이 一個年間에 內閣이 세번變하얏스나 低金利維持方針은 어느 大藏大臣이던지 明言하얏스며 또 公債發行條件도 依然하얏스나 低金利强行方針을 堅持하야 改訂되지 못하얏다.

公債消化에 苦慮
零細한資金까지動員

然이나 生産力擴充政策의 遂行에 要하는 工場設備의 改良과 擴張資金의 需要가 旺盛하얏는데다가 國債消化를 確保하야야할 金融機關의 資金의 流入과 流出의 量도 依然히 減少치 안코 物價騰貴에 依한 一般的商業資金도 膨脹되엇슴으로 金利도 反騰氣味로 低金利政策은 破綻狀態에 陷하고 金融市場의 資金需給關係와 公債市價는 逆比하게 되엇다.

財界의 金融政策에 잇서서는 主要國策으로서의 公債消化는 依然嚴守되는同時에 生産力擴充資金의 民間放出을 圖한다는 表面矛盾된 方策을 取치아니치못하게되엇다.

그 具體的表現의 第一은 七月中旬부터 實現된 日銀의 社債金融으로서 國債引受「신지게」트를 圖引受社債及 時局産業에 對하야 特別取扱을하고 生産力擴充資金의 特殊的供給을 企圖한것이오 第二는 八月上旬에 決定한 日銀의 貸出期限延長으로서 이에依하야 社債金融의 一層有效케한것이다 商業金融에 依한 生産力擴充을 補佐코저함이엇고 그로부터 日銀의 特殊的擴張은 社債的機能의 擴大이엇다.

×

民間金融機關의 公債消化는 公債市價의 引下를 招來하야 公債消化는 大藏省으로서는 一日이라도 쉴수업는 重要問題인 公債消化가 如斯한 金融情勢下에 잇서서는 어떠한 作用을 招하게되는것인가. 그리하야 財政과 金融工作으로서는 圖滑히 行하기 困難하게 되엇다. 日銀은 七月中旬 社債金融의 斷行하는 同時에 國債擔保貸付의 最低步合을 從來의 一錢五厘에서 九厘로 引下하고 株式、社債擔保의 貸付日歩와의 差를 二厘로 하고 八月下旬에는 公債入札를 통하야 公債의 保有를 容易케하얏다.

그러나 民間金融機關의 貸出金利가 反騰을 示하고 民間銀行의 日歩가 此較的騰貴傾向을 示하게되엇슴으로 이에 또 政府는 貯蓄獎勵를 通하야 國民의 貯蓄을 增加하야 이 要을 보충코저 國民의 貯蓄을 奬勵하고 生命保險、信託、生保、地方銀行等의 保有增加를 計劃하는同時에 各民間金融機關에 對하야 公債保有를 强制하고 十一月에 公債의 消化로 一日로 勸奬하는 吸收코잇는데 그 目的을 달하기에는 적지안은 公債消化를 爲하야 萬全의 一層에 있서 公債消化를 爲하야 公債消化를 爲하야 이 公債消化를 促進코잇는 것이다.

金增産과當局方針 中小鑛業을助成
內外地同等取扱希望

金增産五個年計畫案에 依하면 朝鮮의 二十五鑛에서 七十五鑛을 筆頭로 內地十七鑛에서 六十鑛 臺灣四鑛을 合하면 昭和十七年에는 總計百三十九鑛 五億圓餘의 巨額에 達하는데 朝鮮總督府의 希望과 方針은 如左하다

內地金山이 모다 老齡인데 比하야 朝鮮은 거의 全部가 靑年時代에 잇스나 數量도 今後一層 金供給의 重要을 負한 實情에 鑑하야 最少限度로 內地와의 同等取扱을 期하는 同時에 朝鮮獨特의 中小鑛業者에 對하야서는 特히 金融其他助成策을 徹底히 考慮하자는 意向을 가지고잇다한다

米穀問題鬪士 松井房治郞氏急逝

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長 松井房治郞氏는 渡東中이든바 發病하야 築地聖路加病院에 入院加療中 狹心症으로 十日午後六時死去하얏다 享年은 五十八 遺骸는 東京에서 茶毘에 附하고 二十日頃 京城에서 告別式을 執行할것이라는데 東京의 松井家住所는 東京市京橋區築地 一丁目高乃家旅館內 松井ジズ子라한다

故松井房次郞氏는 米倉社長인 外에 朝鮮農會副會長 朝鮮産業組合中央會長 京城商議特別議員 米穀自治管理委員會委員 朝鄕社長等을 兼任하얏고 特히 朝鮮米問題에 對하야서는 往年朝鮮米의 移出統制로 朝鮮米擁護期成會를 結成하고 會長이되어 反對의 急先鋒이 되엇고 朝鮮米穀爲하야서는 終始不斷의 努力을 拂하는 等 米穀關係有力者로서 重鎭이엇던만큼 各方面으로부터 그 急逝를 哀悼하는同時에 그後任問題를 圖繞코 相當히 큰 衝動을 與코잇다

松井氏後任? (鳥貫은 松井氏)

松井米倉社長의 急逝에 伴하야 米倉社長後任과 朝鮮農會副會長 朝鮮産業協會長의 後任이 問題인데 農業、産業關係機關는 不二興業의 三井榮長氏가 順序로 보이고 一方米倉은 그 特殊性으로 皆고 手腕力量、識見이 모두 適任이라하는데 官界로서 되다면 東拓鑛業社長 田淵勳氏소리가 있고 田淵氏는 東拓理事로서 米界、金融界、産業界에 通暗가 김히 必要하나 어며 食糧局長退官의 必要이 財界로부러 推薦하자는 소리가 有力하야 그後補者에 現農林省所長石黑(?)氏가 候補者로 보이다

中小業者도 入札토록하라
魚油共販의打開策

魚油共販制度對策은 關係者間에서 協議中이데 結局그原因은 一共販의 出資가 너무 大量인點에 잇다 即朝鮮産魚油가 最高生産豫想인 一千萬罐에 達한다드래도 輸出의 必要가 업슴으로서 原油로보아도 市勢도 輸出率까지 引下할 必要가 업다 要컨대 數量을 適當히 分割하고 中流業者도 손을 대일수잇슬程度의 入札을 行하면 問題는 解決될것으로 總督府及油肥擔의 이 方面에의 英斷이 期待된다한다

預金總額七億圓 貸出은十三億圓
特銀貸出은五割、預金은三割
全朝鮮金融機關狀況

【京城手形交換所調査】十月末現在全朝鮮金融機關의 預金貸出調査는

◆預金總額이 七億五百十九萬四千圓으로 比前月末 一千九百三十七萬四千圓의 增이오

◆貸出總額은 十三億二千五百四十九萬四千圓으로 比前月末三千八百四十五萬三千圓의 增加이엇다

이제 各機關別로보면 預金에잇서서는 三億一千六百萬圓으로서 特銀이 總額의 三割을占하야 首位이며 普銀과 金組가 各 一億五千萬圓臺로 伯仲之間이다

貸出에잇서서는 特銀이 七億圓으로서 總額의 半以上이며 그다음은 金組의 二億四千九百萬圓、普銀 一億八千九百萬圓으로 金組의 勢力이 普銀보다크다

이제 十月末現在 各機關別預貸를 表하면 如左하다(單位千圓)

	預金	貸出
特銀	三一六、三一四	七一一、六二三
普銀	一五七、一七六	一八九、八八四
金組	一五六、八〇〇	二四九、八一五
信託	四八、七三二	四五、二六七
東拓	八、八三一	一三〇、六〇三
郵貯	一〇五、九六	一
合計	七〇五、一九四	一、三二五、四九四
前月比增	一九、三七四	三八、四五三

京城都市金組 預金增貸出減

京城府內 八都市金融組合의十一月末日現在預金貸出은 預金은 一千四十二萬圓으로 前月末보다 十三萬圓增加 貸出은 九百三十六萬六千圓으로 五萬五千圓의 減少를 示하얏다

朝鮮「레온」絶望

三井系의 朝鮮레온(資本金千萬圓)의 忽懸工場은 會社當局의 積極的希望에 基하야 總督府에서는 資金調整法에 依한 審議를 繼續코잇든바 大藏省에는 大體異議가 업스나 商工省의 意向이 人絹의 生産制限을 行하고잇는 只今 新會社의 設立을 不許하고 强硬한 反對意見을 表示코잇슴으로 同社의 工場建設은 全然絶望狀態이다

朝鮮米直送 六萬噸突破

局鐵、省線이 「라이언」하야 朝鮮運送에 擔當한 朝鮮米內地直輸送은 前年度의 凶作에다가 輸送制限의 關係로 一時變態되엇는데 其後의 朝鮮米 增收에다가 輸送船腹의 不足은 十一月의 輸送量에 ...

輸送은不圓滑이나 米移出續增勢
米移入과粟輸入激減

【財務局調査】十二月上旬의 朝鮮米移出은 三十二萬五千七百四石、十一月以降累計 百四十八萬四千三十七石으로 比前年同期上旬分은 一萬四百六十四石、累計二十六萬五千六百十三石의 激增이다 輸送不圓滑에不拘코 如斯한增勢는 注目되는바이다

米移入은 上旬에 二千八百十石 累計八千七百八十九石으로 五割減되엇다 粟輸入은 上旬六千二百六十九石、累計一萬五千百四十三石으로 比前年同期上旬은 一萬一千七百十一石 累計四萬三千五十一石의 大激減으로서 豐作으로 米消費增大를 意味한것이다

自給肥料의 昨年度需給

昭和十一年肥料年度의 朝鮮內自給肥料生産高及消費高는 如左하야 前年에比하야 若干의減少를示한一面 販賣肥料는 製造高、輸移入高、消費高、輸移出高가모다增加를 示하얏다 即(單位噸)

	本年	前年
綠肥生産高	一、九〇六、八一五	一、三九一、三二六
堆肥生産高	三二、三〇六、八〇四	三一、〇二七、二三〇
自給肥料消費高	三三、三四二、六三〇	三三、六〇七、六七〇
同 反當	八〇〇瓩	八三三瓩

自給肥料는 反當卅三瓩減少인데 販賣肥料는

製造高	九〇一、三四二	七六八、六二二
輸移入	四二六、一二四	三一三、七五一
消費額	八六七、九一四	七七一、六三一
輸移出	三六七、四一七	三一六、九三六

으다 모두增加를示한것은 半島農家의 肥料關心의 轉變을 示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前總裁의 方針踏襲
松原鮮銀總裁談

新鮮銀總裁 松原純一氏는 十日午後二時三十三分 京城驛着着任하야 如左히 말하얏다

昨年十二月七日附로서 滿洲興業銀行 副總裁의 辭令에 接하고 本月七日附로써 鮮銀總裁辭令에 接하얏스니 完全히 一年째이다 淺學菲才의 내가 朝鮮에 큰足跡을남긴 加藤前總裁의뒤를 引受함은 危懼되는일이나 非常時에 直面하야 鮮銀의 使命이 重大한만큼 나로서는 最大의 努力으로써 朝鮮銀行과朝鮮의 産業經濟發展을 爲하야 微力을다하고저한다 新方針新抱負는 업고 加藤前總裁의 方針을 踏襲코저한다

各市場의前觀

株式 戰勝熱狂大爆發

前週末 急騰後 一息이든 市勢는 今週初에 다시 大上放하야 南京陷落、蔣介石下野說을 好感하고 人氣株東新中心의 大爆騰을 告하야 마츰내 東新은 今春 天井臼七十四圓、伊에紛爭當時의 天井臼七十八圓을上廻、百八十圓臺에 上昇하야 昭和九年以來의 高價를 示現하는 近年稀有의 大市勢를 展開하고 鐘新三百圓大關門內迫의 熱狂이나서 週末利喰下押擊에 越週하게되엇는데 勿論 第一期目標南京陷落이 實現되엇스므로 買方의 利退도잇슬 順序이요, 戰勝後의 財界情勢透視難도잇서 多少警戒人氣도 當然하며 東新도 百八十圓이면 投機化한 市勢라 統制經濟時代人의 眼目으로는 過高로보이는點도잇서서 積極買進이 躊躇될것도 事實이므로 玉整理다시말하면 少口賣方의 踏落必要하엿케 此邊一押은 오히려 常識的이다 軟派로서는 地方政權化한 蔣介石政權의 長期抗戰、列國의 態度에 아직도 一抹의不安을 가진모양이나 英蘇의 援助態度가 消極化한지금에 새삼스리 外交關係를 憂慮할것도업고 北支新政權出現으로 支那가 漸次明朗化에 向하는 ...

期米 一大波瀾

新甫發會後 作한 市勢는 産地의 强硬態度에 依한 出廻僅少、輸送不圓滑로 依然 正米가 高値를 보여고 잇서 買方은 어데힘을 어더 다시 上昇運動을 하는동안에 今年의 公定價格은 一般價高로 眺化함에 따라 未曾有의 戰勝인플레는 必至일것으로 보아 야할것이니 一押을告하면 다시 買進할것은 明若觀火다. 東新有史以來의 最高價天井이出現하기 까지는 押目買方針一貫으로 나아가는것이 옳으리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大幅引上이 되리란 說이 傳하야 各地의 買氣는 原原의 火勢로 일어나기 始作하야 阪地에서는 硬軟派의 對立으로 一時騷動을 이르켜 立會를 中止하게까지 되엇다. 어려하야 阪地는 三期모두 三十五圓臺乘으로 今夏天井에 肉迫하고 當地도 三期三十二圓臺를 突破로 可謂天井不知의 勢를 보이게되엇는데 勿論 政府로서는 消費層을 擁護하기 爲하야 米價抑壓策으로 轉換할것이므로 物價一本建으로부터 米價一本建으로 나아갈것이라고 豫測되고 잇스나 여와가티 하드라도 去年에 比하면 相當한 大幅引上이 될것이므로 相當한 高位에 잇스나 아직도 買餘地는 殘存한것이어 確實하야 春高期待와 함께 容易히 低落을 不許할것이니 舊式賣買로 實需筋은 不可하고 어데까지 押目은 買進할수박게 업는 市勢이다.

生絲 戾高價도一巡 商勢依然不味

市勢는 警戒氣分으로 伸力이 鈍重트니 畢竟다서 戾賣商狀이되어 現物賣買展開難과 함께 六百八十圓臺로 低下하고 말엇는데 勿論一部에는 戰捷 과 春高氣分으로 掉尾一振이 잇슬지도 모른다고 年內賣는 妙味가 적다고보아 追擊賣를 警戒하나 어느 便으로는 벌서 戰勝氣分은 賣盡된것이라 看做하라면 實需는 極度의 買漲欺反動으로 春物手當을 하는 方向에 잇서 當面需給事情은 悲觀的이어니와 米國의 크리스마스 景氣如何가 目前의 動向을 決定할것이오 絹業不振、人絹壓迫、米國景氣의 意外頓沈狀을 생각하면 大局的 ...

(戰勝氣分과 環境高로 七百圓臺回復엿는)

綿絲 米棉高와함께 漸次回復步調

現物低調와 今回商工當局의 內地向綿絲綿布에 人造纖維 三割을 强制的으로 混用키로 決定하야 警戒人氣가되어 漸次不勢가되엇스나 米棉暴落收還豫想이 千八百七十四萬餘俵인 比前 豫想五十萬俵增을 보고도 米棉 市場이 도로혀 反彈狀을 呈함을보고 人氣는 다시 硬化하야 다시 回復步調가 되엇다 英國新農業法의 透視도 依然困難하고따라 그것에 큰期待를 가질수업다는 人氣로 多少歡迎하는 一般物價高 輸出貿易의 好轉、一般的傾向이 보이나 好轉되된環境이 目前은 如何든 大局은 큰惡觀을 不要할것이라 보인다

으로는 依然 吹價買方針어울치안흘가 하는 說이 有力하다

人絹 當限七十圓臺 押目買氣旺盛

人絹을 內地向 綿絲綿布에 混入키로 決定한 것은 繼維界에는 多少警戒하고잇스나 人絹界는 好感되어 스며 人絹은 綿絲代用 繊維가 된다면 消費發展에도 期待를 가질수 잇다고 漸次 樂觀人氣가 되어 五、六十萬國에 依然不振이라고 警戒하는 側도 업는바아니나 押目賣氣는 當하 强하야 會社側의 態度 硬化와함께 漸漸步調로 當限까지가 七十圓臺를 보이게 되엿당 價位를보아 警戒하고 다하는곳이라도 大勢는 업 驛는일은 업슬것이다. 그러나 老舖側은 越年後를 期待하고잇는모양이다.

今日의市勢【十一日】

株式 南京陷落 反落

前場下落 昨夜에는 南京城低强止場以後 昨後場來는 南京陷落이報入하야 人氣益益强硬하여 엿스나 市勢는 買方의 利喰과 今後의 情勢展開를 다시 靜觀할 必要로 休日을앞두고 外電低와함께 處分賣物이 만하 反强세에 推移되어 寄付高를남기고 主力株中心의 下押이되어 結局東新百七十五圓丁 鐘新二百八十五圓八厘써 今週를 마치고 後場은 例休이엇다

順序一押 買方의 利退로

待望의 南京陷落은 오고야마 로 往殘하니만치 南京陷落 을 契機로 警戒가될도 오히려 當然▲그리나 어는 다만 透 明한 무엇을 보겠이아니니 어 떤 困難에서오는것이오 決코 뚜 어 杞憂로 判明되든때의 연 플레의 힘은 結局 從前에보 지못하든 大市勢를 展開하고 야말것이다.◆戰後에 더 緊張하 여야할것과 마찬가지로 目前 軟化를 오히려 當然視하야 新時局賣買로 是認하드라도 一 押後 더욱勇氣百倍할 順序…… (金剛城)

米 ……正米市勢는 꾸준하게 도 强硬을 繼續하야 丸仁正三 等三十二圓四十錢의 新高價▲ 正米의 實勢가 如是하드보아서 는 滿鮮도 更히 最高價할 餘地가 업는것▲그런데 當地는 仕手 關係가 박귀어 地場은 賣崩成 는 觀이업지아니하고 來客은 買 賣成으로 方向轉換▲阪地는 市 勢의 步調로보아서 一落이잇슬 것도가트나 正米實勢가 頑强 한 만콤 壯談할수업는것 何如 間 新公定米價의 發表를 보고 後 의 일이 엇다 (靈山)

株 ……苦待든 南京陷落이 實 現한 今朝에는 市勢는 反落 ▲世上에 皮肉의것은 市勢 로다▲그러나 陷落市勢、將 下 野市勢는 벌써 낫섭이나 異常 期될것도 업고▲財界人으로서는 戰爭後의 情勢를 戰爭以上으 로 注視하고니만치 南京陷落 을 契機로 警戒가될도 오히 려 當然▲그러나 어는 다만 透 ...

南京陷落과 財界는 어떠한 영향이 다음으로는 戰 爭이 이것이 끗난다 하드라도 戰 後의 財界는 어떠할것인가 하는 透視가 多少困難한 때문이 보다 그러치안해도 東新五十圓臺 新百圓大擁上市勢이니 常識的으 로도 此邊一押이 오히려 當然 하다는데이니 이것으로 決코逆 轉을 悲觀할것은 못되고 못까 지 押目買一貫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다만 押目의 程度에 對 해서는 特히 細心한 注意가 必要 할것이다

國債 區區이나 上向

【東京電話同盟】五分利物에도價待賣物이 出現하야 五錢少弛이엇스나 四分利物은 小口어나買 需側買物이어서 五錢上向하고 佛 貨는 前日高의 反動으로 二十 一圓五十錢低를 示하고 米貨는 大分半五錢低를 示하엿다 ▲一回四分一〇一、七〇 ▲二 回四分一〇一、七〇 ▲十九年 物一〇一、八〇 ▲佛貨四分一 九六、二〇▲米五分半三五九、 五〇

期米 漸進裡에 前場强調

前場强調 今朝阪地三十四 圓八十五錢인 四丁反高를 報하고 當已二圓十三錢인 一丁低 中은 一圓九十五錢인 一丁高로 先限 은 三十一圓九十九錢인 六丁反 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漸高步調 로 다시 九十錢臺에 올라 九 十五錢에 止場하고 漸高裡 에 再進强調를 보이다가 三十 二圓〇七錢에 止場하고 後場은 土曜日로 例休이엇다

當分强保合?

新甫一月限이 發會한後 阪地는 低價로 百五十餘丁의 反高를 示하고 當地는 百五十餘丁의 反 騰을 示하는 途中 阪地는 賣方의 亂 手賣로 暴商立會停止의 混亂을 呈하고 當地는 阪地의 立會停 止를 對하야 强材飛하야 又一段 의 高價를 演出하엿스다 要하면 前途米價의 又復昂騰일거슨 正 米의 實價로 보든지 又는 環...

正米 警戒이나 少高

京城强調

賣方이 新材待로 賣買을 躊躇하야 氣配는 强이나 休日을앞두고 當用買로 市價十錢 高이다 ㊁三等三三、五〇 四等三 一三〇 一等白米 一三、三〇

仁川續騰

貨車廻不圓滑로 當 地出廻는 적고 環境高로 益 益强硬하야 市中賣物이 때라 休 日을앞두고 地場精米側의 手當 買로 市價又復十錢高이엇다 ㊂ 穀良三等三三、五〇 四等三三、 三〇 銀坊三等三三、五〇 多摩錦三等三三、 〇〇、四等三二、八〇 一等白米 四一三、二〇 ㊃一三、三〇

釜山少高

奧地는 先高氣 勢로 不賣하야 買付困難을 極하 야 納入期日接近으로因한 買人 氣와 各地期米高와 南京陷落에 良化하야 市價도 十錢 二十錢高 이엇다 ㊁穀良三等三三、三〇 四 等三三、〇〇 一等白米 一三、八 〇

大邱保合

戰勝氣分에 堀 揚되어 各地期米의 上放을보고 市中人氣는 底意强하고 奧地는 高

群山氣丈

南京陷落과 各 地期米의 戰勝高를보고 市中人 氣는 萬歲氣分으로 賣物이 極히 적고 廻米도 年內渡의 先約物 로 賣物이 되지안허 休日을앞두 고 地場必需手當으로 市價 一二 十錢續騰되엇다 ㊁三等 三三、 一〇 四等 三三、九〇 一等白 米 一三、三〇

木浦不變

各地期米上放을 보나 此邊은 適價視하야 一般으 로 高價는 飛付치안코 奧地도 小口所持側의 賣物이 一巡하야 市中變方이 保合이엿다 ㊁三等三 三、三〇 四等三三、一〇 一等 白米一三、二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仕手態度注目

以上の 此邊의 쇄상시세는 말하자면 實方의 鮮中心에서 有力側의 힘으로 업서 오는 大衆의 賣惑을 아니고 賣手들의 不安을 局面이 되어 仕手關係에만 資眼할수업 다고云云

地場은下賣成

(當地市場은 遂當三十二圓七 八十錢臺의 高價를示하엿슴 當 時부터 實方主力側 即地場一派 側은 賣出利退하고 反面의來客 實方은 飜然히 賣出하야 此邊에서 滿保 米價의 決定을 기다리다가 新公定 價의 決定發表를 보아 左右 할것이다

今日財界【十一日】

◆米

仁川期米先限	三二、〇〇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三五、〇〇	[illegible]
京城一等白米	一三、三〇	[illegible]
正租(仁川)叺	[illegible]	[illegible]
一斤	[illegible]	[illegible]

◆株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十日】

[illegible]

銀行券【十日】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錫油粕·麥粉

◆阪神錫粕 [illegible] ◆阪神錫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米 百圓에 二九弗三分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十一日】

◆白米 ◆肥料 ◆京城燃料物價 ◆紙物 ◆染料 ◆海産物 ◆毛絲 ◆人絹織 ◆木材 ◆牛皮 [illegible]

期米 益 東益夏 仁川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本町三丁目 電話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